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열차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구원방주



다시 내리지 않는 구원의 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삿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김재욱 지음



그리스도 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구원열차 구원방주

지은이 / 김재욱

1판 1쇄 / 2015년 5월 15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시 남구 학익동 569-7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46-3 03230

정가 : 5,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구원열차 구원방주

김재욱 지음

Salvation Train *Salvation Ark*

—J. W. Kim—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1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강제임스 흠정역 성경 400주년 기념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구원과 구원의 유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사망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며 살아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절망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아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창조물의 도움이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고전 15:3~4),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믿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누구나 거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롬 10:9~13).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면(요 3:3~8)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요 14:16), 부활로 그 사람의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봉인하십니다(엡 4:30).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의 어떤 창조물도 감히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롬 8:35~39).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서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신조였으며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자 마귀는 교활한 전술전략으로 명백한 구원 교리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행위’, 즉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

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동에 빠뜨렸던 유대주의자들의 이단 교리와 동일한 것으로 성도가 한 번 이런 교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의 퇴행을 겪으며 평안을 잃고, 급기야 구원받기 전에 졌던 속박의 멍에를 다시 지게 됩니다(갈 4:9).

성경은 구원받을 때 사람의 행위가 티끌만큼도 일조하지 않으며 구원을 유지하는 데도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오는 성도의 행위는 철저하게 그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에만 소용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분명히 받되 불 속에서 받는 것처럼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의 일(행위)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고전 3:15)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은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eternal life),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을 얻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하고 영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벧후 1:4).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는 분은 성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 10:28). 그러므로 온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성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로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히 5:8~9).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히 13:5).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히 7:25)

이처럼 더없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인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가 심

각하게 훼손되고 약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재욱 형제님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원 열차(구원 방주)>라는 복음성가를 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 당연히 여기며 굳건하게 지켜왔던 믿음과 구원의 원리를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위태로운 영적 싸움터에서 천군만마를 만난 듯 반갑고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구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 유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에(요 19:30)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무궁토록 제거되었습니다(요 1:29).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고 중요하며 아름다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가 이 책을 통해 방방곡곡으로 널리 전파되어 사악한 가르침의 차꼬를 풀어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 10:28)

샬롬.

-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김재욱



작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 90년대 초 사회에 첫발을 들인 그는 여성지 우먼센스 디자이너로 4년 동안 일하면서 크리스천 매체에 글을 썼다. 이후 프리랜서로 독립했다가 2001년경 문화선교기업 낮은올타리 아트디렉터로 입사했다. 그 뒤에 웨딩라이프 이사로 일했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한겨레신문 프리랜스 삽화가로 일하면서 킹제임스 hymn 성경 사역에 동역하고 한국창조과학회,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와 협력 중이다. 글쓰기, 그림, 도서 기획 등을 함께 하며 창조과학, 복음 변증, 성경적 데이트 코칭, 문화현상 등을 주제로 강연 활동도 병행한다. 처음에는 육아수필집과 웨딩칼럼집을 썼다. 20권의 저서 중 3권은 기독교출판문화상을, 1권은 문서선교인이 뽑은 상을 받았다. 창조과학, 종말론, 복음 변증, 신앙 교리 등의 어려운 개념을 쉽게 안내해 온 저자의 이 책은 <구원열차>라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한 절씩 풀며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를 쉽게 푼 것이다.

주요 저서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이상 그리스도예수안예)

연애는 다큐다(국제제자훈련원) | 독자를 설득하는 쉬운 글쓰기(필로) |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1·2

1318 창조과학 A to Z | 1318 신앙질문 A to Z | 1318 신앙 멘토 스쿨 | 1318 성품 스쿨 | 머리에 쓱쓱~ 창조과학 만화교실 1·2(공저)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공저) | 내가 왜 믿어야 하죠? (이상 생명의말씀사)

▶ 홈페이지 www.jaewoogy.com ▶ 블로그 www.woogy68.blog.me ▶ 이메일 jaewoogy@chol.com

영속성의 보장이 없는 구원 복음은 절망의 소식일 뿐입니다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단 한 시간만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을까 고민하며 죄에서 자유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죽음을 예약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어 그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기도 인도를 하는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이 내용을 넣어서 기도를 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맞죠? 그렇다면 끝난 일입니다. 물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서 그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고차원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어 봐야 안다면 어떻게 기도해선 안 되겠지요. 무엇이 진실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기도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 언행의 불일치로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은 하나같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삶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격이 없으니 인간을 위한 천국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요 8:32). 그런데 왜 성도에게 자유가 없을

까요? 구원이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영원한 효력을 지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항상 배우나 결국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되면 불행합니다(딤후 3:7).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구원에 대해 불안하거나 모호하거나 궁금한 분들은 꼭 읽고 참다운 자유, 방종이 아닌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장황한 학문 안에 있지 않고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시대와 수신자에 맞게 바르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옵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열차>의 1, 2절 가사를 따라가면서 구원의 안전성과 하나님의 보장을 자세히 알아보고, 천국과 지옥 간증의 문제점, 요즘 교계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기차를 타는 원리, 방주에 탑승하는 원리, 그리고 세상 모든 상식적인 원리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질서가 있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책의 아이디어는 오래된 유머 한마디에서 얻었습니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아직 지하철이 부족하던 시절, 고질적인 서울 시내 교통체증으로 제 시간에 약속장소로 가기 어렵던 때, ‘급하면 버스에서라도 뛰라’는 농담이 있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차 안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크리스천의 안쓰럽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성경지킴이 사이트와 제 블로그에 ‘기차 이야기’라는 글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의 축약본이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구원과 복음 강연 때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표 필요 없다고 주일학교 때 다 불러놓고 이제와서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무언가 보태 다르게 믿는 것을 신앙의 성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수많은 약속을 스스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도가 행위를 보태야 할 정도로 대속의 효력이 부실한 예수님의 피, 믿는 자를 집으로 삼고 영원히 거하신다지만 막상 함께했던 그가 지옥에 갈 때 속수무책인 어설픈 성령님의

로 만들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우상의 종교와 동일시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관한 많은 성경구절과 그에 대한 친절 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음이 급속히 흐트러지고 왜곡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 에게 널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출간한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에도 구원 교리에 대해 많이 썼으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한 분들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큰 출판사에서 나올 때처럼 컬러로 꾸미지는 못했지만 내용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이 구원의 교리를 회복하고 바르게 알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 교리의 회복을 위해 흔쾌히 출간을 해주신 정동수 목사님과 미디어 현금으로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김대용 형제와 77쪽의 내용을 제보해준 유나얼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글을 쓸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많은 성경 신자 형제 자매님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구원 취소의 교리가 나오는 이유는 교계가 부패하고 우리가 너무 악하여 행위의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구원 교리와 섞으면 진리가 훼손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악한 것을 가르치는 이단,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는 무지한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부디 바른 성경을 통해 바른 판단을 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완전한 속죄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영원한 희생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아 보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 구원열차의 가이드, 김재욱 드림

추천 서문	5
머리말	9
프롤로그	14

1장 |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 내가 타는가, 태워주시나?

1. 구원으로의 초대, 정해진 사람만?	19
2. 구원에정설과 만인구원설, 어느 게 맞지?	21
3. 모순이 아니라 완전한 논리	25

하늘나라 가지요 ♪ 크리스천이 가는 곳

1.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	29
2. 영원한 불의 지옥도 실존하는 ‘장소’	31
3. 천국에 대한 오해	33
4.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36
5. 천국 지옥 간증의 특징과 문제점	46
6. 성경 밖의 천국과 지옥은 없다	51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 죄악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1. 당신의 출발지가 ‘죄악역’이다	54
2. 회개는 감정이 아닌 회심이다	56

다시 내리지 않죠 ♪ 성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

1.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	59
2. 자기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61
3.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떤 일이?	63
4. 교회에서 배교하기	65
5. 신학은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망치는가?	74
6. 구원과 성화의 지점과 물	76
7.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81
8. 선행과 고행의 유혹	83
9. 종교 다원주의의 길	86

차표 필요 없어요 ♪ 구원이 공짜인 이유

1. 구원에 필요한 것	95
2.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96
3. 구원의 과정과 순서에 대한 오해	99

주님 차장 되시니 ♪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인가?

1. 구원열차의 밖에 있는 자들	102
2. 다른 운송 수단의 차장들	105
3.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116
4.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	119

나는 염려 없어요 ♪ 복음은 평안이다

1.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121
2. 염려하지 말라	125
3. 구원의 영속성	127
4. 영원한 선물은 영원하다	131

2장 |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 방주의 탑승 과정과 목적지

1. 방주는 역사이며 구원의 예표	139
2. 방주에 탈 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었나	141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 방주는 뒤집히지 않는다

1. 노아의 방주와 복원력	145
2. 방주에서는 아무도 내릴 수 없다	149

벧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 방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1. 노아는 선장이 아니다	156
2. 방주로 나아온 동물들	158
3.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염려가 없다	161

에필로그 : 구원열차와 구원방주, 확실히 올라타셨나요?

전도 자료 :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성경적 구원의 참된 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구원이란, 구원의 영속성이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원리를 우리는 이미 이 노래로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죄악역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염려만 할까요? 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순수하게 믿지 못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진리를 알면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행위를 보태야 한다,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애매하기도 하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나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공해와 재난에 찌든 어지러운 도시를 가로지르는 기차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빠르지만 안정적으로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세상의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닙니다. 이 기차는 구원열차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계속 연결된 기차는 구불구불한 레일 위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 기차의 기관사는 하나님, 차장은 우리 예수님이며 엔진은 성령님입니다.

기차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태우고 잃어버린 낙원을 향해 서쪽으로 끝없이 달려갑니다. 물론 탑승자들의 목적지는 모두 한 곳입니다.

이 기차는 특별합니다. 탑승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웁니다. 이

기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승객이 많아지면 그때마다 수백 수천 량이라도 객차를 늘려 지체를 만들어가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고 선로를 따라 맨 앞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달려갑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벅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상자 모양의 배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성난 바다를 지납니다.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검푸른 색으로 넘실대는 물결 위를 아슬아슬하게 떠다니지만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배는 구원방주입니다. 이 배의 선장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동행하시며 탑승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교만으로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도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내리고 싶어도 목적지에 안착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절대 내릴 수 없는 피난처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배는, 열려 있을 때는 누구나 탈 수 있지만 일단 닫히면 기회가 없으며, 탑승을 거부한 악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열차와 구원방주를 타고 함께 떠나 볼까요? 노래 가사 안에 담긴 단순하지만 명료한 비밀들, 가이드인 저와 함께 열차와 방주에 함께 타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가볍게, 하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떠나 볼까요? 🎵



PART

1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 내가 타는가, 태워주시나?

하늘나라 가지요 ♪ 크리스천이 가는 곳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 죄악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다시 내리지 않죠 ♪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

주님 차장 되시니 ♪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인가?

나는 염려 없어요 ♪ 복음은 평안이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1부 | 내가 타는가, 태워주시나?

1. 구원열차의 초대, 정해진 사람만?

자, 먼저 구원열차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차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안쪽은 소박하지만 안락하고 깨끗합니다. 열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군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타면 안될 것 같은 조금 험상궂은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타고 있을 줄 알았던 그분은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시네요.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 섭니다. 타려는 사람들을 더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차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손에 무언가 종이는 한 장씩 들고 있네요. 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죠?

“아~ 이거요? 이것은 물론 초대장입니다.”

♪ 기차를 세워 달라고 한 건 아주머니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차의 차장님이 보낸 이 초대장이 없었다면 이 열차는 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 그렇군요. 아주머니한테만 특별히 보내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니 길거리에 신장개업 전단처럼 구겨진 채 나뒹구는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나누어 주셨지만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 외면하고, 귀찮아서 아예 받지도 않고, 어쩌다 받은 사람도 휴지통이나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모두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눅 14:18~20)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열차에 좌석이 충분치 않아서 이미 예정된 사람들만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차의 목적지에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가기 때문에 모두 초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지요.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인데... 어찌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능력은 각기 다르게 만드셔서 귀하거나 천한 그릇으로 쓰시지만, 인격의 크기는 같고, 영혼의 무게도 똑같은데 어떻게 특정한 사람만 살리신다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권이기 때문에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전도는 왜 하며, 어차피 살 사람은 살 텐데 애써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2. 구원예정설과 만인구원설, 어느 게 맞지?

칼빈이라는 사람은 ‘구원예정설’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마르틴 루터M. Luther처럼 프랑스의 존 칼빈J. Calvin(장 칼뱅)도 원래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칼빈은 현대의 신학적 논리에 커다란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 사람으로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초의 조직신학서로 불리는 <기독교 강요> 등 체계적인 저술로 개신교 전체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니셜 툴립(TULIP)으로 대표되는 그의 5대 강령(교리)은 지금까지도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이 되어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무능력한데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조차 없고, 그들은 한때 타락할지라도 결국 성도의 견인悭忍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반대되는 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알미니안 주의 역시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한이나 결정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무색해지고, 신인 협력설이라고도 할 정도로 사람의 구

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 축소돼 있습니다.

이 두 교리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할 때 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학설, 교리, 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절대화 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각 교단이나 추종자들의 지침이 되어서 성경조차 뛰어넘을 기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슨 주의, 누구의 교리 이런 것을 떠나 상식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선택받은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교리가 나온 뒤 한때는 선교운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알미니안 주의는 구원을 너무 간단히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초대장은 성경을 통한 것이거나 사람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여러 번 초대를 받은 사람일수록 거부했을 때의 형벌은 커질 것입니다. 이런 초대장을 받은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거나 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요 14:2). 등수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에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한국 사람들은 천국의 커트라인을 걱정하지만, 천국은 점수 매겨서 그 이하는 자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키가 자꾸 크면 기쁜 마음으로 더 큰 옷을 사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바지가 짧다고 다리를 자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못난 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걱정할 시간에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열차를 세상의 여느 기차들과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 콘서트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제가 앉은 곳은 그 일대가 모두 초대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만 앉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의 임자는 모두 초대권

을 받았지만 자기네가 안 온 것이죠. 좌석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사 55:1)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는 보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열심히 살며 잘 행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 갚아주시는 원리,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불만에 떨게 하는 이단들은 그런 가르침으로 보아 그들이 이단임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두를 부르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 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개에 이 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일부만 택하여 그들만 구원 한다는 것입니까? 또는 모두를 무조건 간단히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토록 애타게 초대에 응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속히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겔 33:11)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꼭두각시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루시퍼나 그의 천사(졸개)들이나 주님의 천사들이나 인간에게 모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려면 모든 것을 할 자유, 심지어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까지도 배반할 자유까지도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여기게 되면, 그를 가두지 않고 자유를 줍니다. 부모를 죽이고 때리는 패륜아도 있지만 그것을 염려해 가둬둔다면 참다운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 14:12~14)

그래서 마귀 루시퍼가 이처럼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악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인격체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자유’를 잘못 활용한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인간의 자유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 1:20)

초대에 응하고 거부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이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

시므로 구원열차에 올라탈 사람은 언제든지 태워주시고, 마귀의 소유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또 그런 선택까지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소속을 바꿔야 합니다.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지금, 구원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누가 타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바로 내가 타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혹은 주님의 초대장도 길거리에 버려둔 채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 내가 언젠가는 구원열차에 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거기 저절로 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초대장을 들고 위대한 구원의 열차에 탑승해야 합니다.

3. 모순이 아니라 완전한 논리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은 수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일상에 분주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하셨지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 24:38~39)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보낸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요 6:44)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행 13:48)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올 수가 없고, 단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정인만 구원하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요 3:16 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열차에 오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하지만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것뿐이지 결국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즉 모든 일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간 편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순간순간 삶을 결정해 나가고 있으니 미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벧전 1:2)

어떤 사실은 그것만으로 맞다 틀리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넌 아빠에게서 나왔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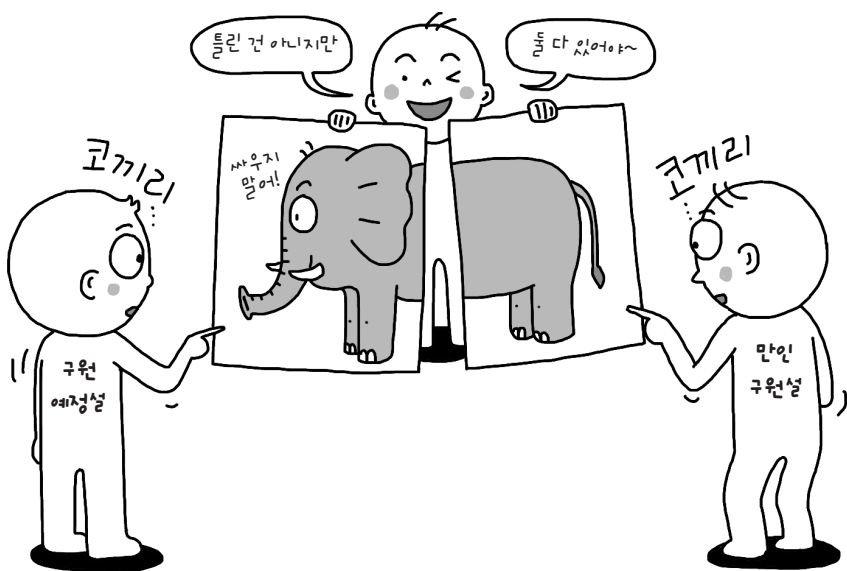
그런데 엄마가 또 말합니다.

“넌 엄마 배에서 나왔어.”

그러면 아이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가 상대방의 말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① 아빠에게서 나왔다.

② 엄마 배에서 나왔다.



이 두 가지 정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됩니다. 아빠의 말도 엄마의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쪽 말만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보를 다 취했을 때 완전한 해답이 나옵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자신들의 안에 있는 것들로 만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부분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얼핏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균형감을 가지고 잘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각각의 말씀으로도 틀린 것이 아니고, 상반된 모순적 논리도 아니며, 각각의 말씀이 서로의 정보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정’이라는 개념은 믿을 사람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를 예정하시는 것이지, 선택되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일

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영생으로 가는 구원열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초대장이 있습니까? 혹시 길바닥에 버리셨다면 얼른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을 소중히 간직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커다란 특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열차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 열차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개개인의 역사가 끝나도 열차에 탈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모두에게 내일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고 역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플랫폼에 멈춰 서는 생명의 기차를 향해 용기를 내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늘나라 가지요

2부 | 크리스천이 가는 곳

1.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

열차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막연한 곳이 아니고, 우리 모두 몸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다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느껴지고 하는 것뿐입니다.

직선운동만 하는 일차원 동물에게는 면을 다 활용하는 동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 기적으로 보이고, 면을 활용하는 존재가 삼차원 공간을 다니는 동물을 보면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갑자기 없던 음식을 갖고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사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기적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물질의 주인이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 혼이 현 세상의 차원을 넘게 되면 그것이 더는 기적이 아

닌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무소부재, 즉 편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천사나 마귀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무한합니다. 그 시간이 영원합니다. 우리 생물체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도 그 수명이 거의 무한대입니다. 하물며 천국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가끔 천국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은 단지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혼이 가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사실 천국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구원의 이유도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결과지만, 우리 미천한 인간의 낮은 차원에서는 솔직히 천국에 가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가장 절실한 문제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지요.

천국은 반대로 말하면 지옥을 피하는 길입니다. 천국도 가고 싶지만 지옥은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단인 여호와 의 증인처럼 죽음 이후 영혼의 멸절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며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모든 잘못된 종교나 이단은 천국과 지옥을 왜곡합니다.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든지, 뭘 바치고 무슨 행위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슬람교의 천국은 물이 끝도 없이 흘러넘치는 곳이 있고, 부인을 무제한으로 두며 무슬림들만 즐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여성은 평생 히잡을 쓰고 인권 탄압과 억압을 받는데, 죽어서도 무슬림들의 부인 노릇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그들의 지옥에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가는 층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들은 천국과 지옥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소망과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중을 억압하고 굴복하게 만들어 이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 영원한 불의 지옥도 실존하는 ‘장소’

천국도 잘 알아야 하지만 지옥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옥도 괴로운 ‘상태’가 아니고, 천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는 분명한 ‘장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스올’이라든지 ‘음부’라고 번역된 성경을 보면 지옥이 몇 번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지옥은 성경에 54회 정도나 언급됩니다. 지옥地獄은 말 그대로 땅의 감옥입니다.

먼저 지옥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봅시다. 우선 지옥은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인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불로 인한 그곳에서의 고통은 잠시도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막 9:48~49)

(부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공흘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눅 16:24)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원래 마귀(Devil)와 그를 따라 반역한 천사들, 즉 마귀들(devils)을 형벌로 가두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천사는 한 번 타락을 하면 회개하거나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으니 부활할 길도 없고, 대신 죽어 줄 희생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가 가능하며, 순수한 피를 지닌 친족이 그 피를 모두 흘려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그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단 하나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예정된 마귀가 그토록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형벌 장소에 가는 이유는 에덴동산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요 8:44 상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값에 따라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기본값이란 컴퓨터에서 문서를 입력할 때 별도의 색을 지정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아무 지역번호도 누르지 않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앞에 02가 자동으로 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걸려면 해당 지역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해서 지옥을 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계속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며,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그래서 마귀의 소유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은 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겠지만 결코 그곳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저주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 13:41)

지금 지옥은 땅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끝나고 불신자들과 마귀와 거짓 대언자가 갈 곳은 ‘불 호수(불 뭇)’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이 불로 된 호수이며 영원 무궁토록 악한 자들의 고통과 신음이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3. 천국에 대한 오해

그런데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천국에 대해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에 ‘천국’ 또는 ‘하늘나라’로 나온 것이 모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번역의 맹점인데,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다른 책에도 다루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단히 다시 돌아봅니다.

영어로는 각기 다른데도 모두 ‘천국’으로 번역된 말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천국’으로 통일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 ① kingdom of heaven : 하늘의 왕국(하늘로부터 임하는 땅의 왕국)
- ② kingdom of god : 하나님의 왕국(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세계)
- ③ heavenly kingdom : 천국(성도가 죽어서 가는 천국)

kingdom, 즉 ‘킹덤’은 통치자인 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곳으로 ‘왕국’입니다. 두 번째 ‘킹덤 오브 갓’은 하늘(heaven)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천국으로 번

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③번 ‘헤브리 킹덤’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즉 하늘나라입니다. ①번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으로 다스리실 실제 나라를 뜻한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모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마 3:2).

그때 실제로 천국이 왔나요? 2천 년이 흐른 지금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한 것은 곧 다 죽는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통치자 왕으로만 생각해 거부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실현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개역성경)

이 말씀을, 천국은 열심히 쟁취해서 얻는 것이라고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속 노력해야 할까요? 그럼 수능 보듯이 서로 경쟁해서 간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 역시 땅에 실현될 하늘의 왕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마 11:12, 흠정역)

다른 성경도 볼까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해 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공동번역)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현대어성경)

역시 천국을 쟁취하라는 뜻이 아니죠?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위선자들로 인해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선포된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라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 12:24)

그들은 이런 말로 성령님을 모독했습니다. 감히 언어의 폭력으로 예수님이 만드실 나라를 조롱하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발언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마 12:31)

과도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성령훼방죄’라고 가르치며 신비한 일을 추구하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며 아직 진정한 신약시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즉 새로운 상속언약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히 9:16)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다 끝난 시점부터가 신약입니다. 이후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물론 신성모독은 큰 죄입니다만 영영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끝내 멸망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성령훼방죄를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왕국에 폭력을 가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훼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폭력배들이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 내고 우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 24:44~51)

우리말 개역성경의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나오는 부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이야기가 열심히 그곳을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4.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기차를 탄 사람이 목적지에 미리 가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종착지인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중에 있는 국내외 간증과 책, 방송, 직접 강연, 각종 동영상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증언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이야기의 신빙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닐까요? 저마다 자기 것은 진짜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각기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골라 취하고 있는데요... 마치 종교를 고르듯 말입니다.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가짜라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

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의도가 순수하고 좋다고 해서 무작정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모든 증언은 거짓입니다.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와 유명한 간증자들을 통해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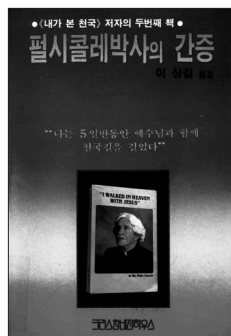
한국 전문 사이비 목사 펠시 콜레

미국의 큰 교회 목사로 소개된 펠시 콜레는 간증 스타 제조기 조 아무개 목사가 만든 작품입니다. 펠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과 간증은 198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많은 책이 판매되었고, 그가 방한해 집회를 열면 수많은 군중이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그리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황금 길과 보석으로 덮인 성 같은 이야기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교계가 부끄러워서 단체로 쉬쉬하고 덮은 이 사기꾼이 국내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통역을 맡은 당시 모 기독교방송국 부사장은 콜레의 말이 성경과 너무 맞지 않아 집회 도중에 단을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펠시 콜레의 진면목은 이후 그의 여비서가 폭로했는데, 한국에서 워낙 간증이 잘 먹히다 보니 아예 한국인 비서를 두고 미국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지켜보니 그는 성경에 먼지가 쌓일 때까지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몇 천 명 모인다는 자신의 교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는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었던 것입니다.

여비서의 폭로는 당시 교계 신문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으나 조목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아직



펠시 콜레의 두 번째 책

도 누군가 찍어서 팔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우스운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도 읽고 감동과 은혜의 독후감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기막히고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잘못된 정보는 스스로 진화해 꼬리를 물고 새끼를 쳐서 진실보다 더 큰 괴물로 변해가는 법입니다.

돈벌이로 끝난 토마스 주남

미국의 토마스 주남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도 십여 년 전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한때 크게 화제가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동영상 등으로도 제작돼 전도용에 사용됐습니다. 이 역시 지금도 믿는 이들이 있지만 알 만한 이들에게는 최악의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인 토마스 주남이 이 책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등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조지 부시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것, 시한부 종말론, 비성경적 증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의 책

또한 그녀는 자기가 만든 성령 춤이라는 해괴한 춤을 추며 예배시간에조차 멋대로 행동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므로(고전 14:33) 이런 무질서한 행동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써 알기 때문이지요. 이 역시 조 목사가 번역, 보급해 많은 돈을 번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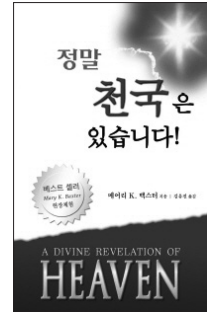
진지하지만 부실한 메리 백스터

메리 백스터라는 미국 여성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라는 책으로 꽤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간 나온 간증들보다는 나름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서 진지한 전도의 메시지를 담으려 애쓴 흔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과 주관적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들이 지니는 여러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간증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이 큰 날개를 지녔다고 증언하는데, 이런 모습은 뉴에이지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사일 뿐,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없고, 여자나 아기가 없이 모두 남자이며,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헌금시간에 천사들이 각 사람의 마음 자세를 기록한다는 대목도 있는데,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므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천주교의 성화어나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결코 서유럽의 백인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본 예수님은 자기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밖에도 갖가지 비유적 환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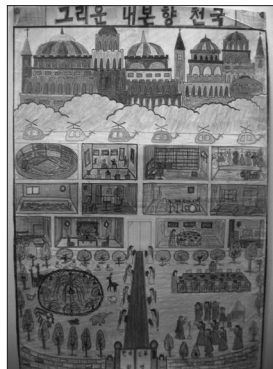
메리 백스터의 책

엽기에 가까운 손모 여전도사

이단 교리의 집합소인 K교회에 그들이 자랑하는 젊은 여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년이 되어 따로 활동하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몇몇 아이들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여전도사의 체험은 당시 상황이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림으로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간증하는데, 극락인지 천국인지 모를 정도로 성경과 관계없는 다양한 증언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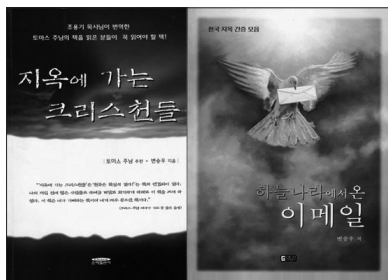
한 예로 위의 메리 백스터의 경우, 지옥에 아기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이 들기 전의 아이들은 모두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지요. 메리 백스터는 이 교리에 대해 성경에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지옥에서 아기를 못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미국인의 기본적 성경지식이 그나마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사는 지옥의 끓는 기름 가마에 사람들이 튀겨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인 아기를 밟고 올라설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손 여전도사가 어릴 때 체험 중 그렸다는 지옥과 천국

매우 조악한 솜씨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그림들은 어린아이의 그림이라기보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어른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여전도사의 간증도 그가 거처온 교회의 다양한 이단 교리 중 한 축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내는 책들은 보는 것처럼 황당합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 라니, 크리스천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은 ‘환한 어둠’, 또는 ‘착한 마귀’처럼 말 자체가 모순된 표현입니다. 얼마나 무개념인지 알 수 있는 제목인데요, 아직도 이 교회의 이단성과 유치함을 몰라 거기 출석하거나 그곳의 책과 설교 등을 공유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 빈약한 분별력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성경 지식까지도 필요 없고, 상식만으로도 그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영터리 교리의 집합소 K교회의 책들

지옥 체험 후 회개한 모 노인

몇 년 전에 한동안 잠잠했던 천국 지옥 간증이 다시 화제가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 다니다가 지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노인의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교회에 다니는 가족들을 뽐박하며 독불장군처럼 버티다가 병을 얻어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지옥에 다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꽤 디테일이 있고, 치를 떠는 생생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마트폰 본격 보급 전이었지만 전도용 동영상으로 많이 전파되기도 했었지요.

이 할아버지는 지옥은 뜨거움도 괴롭지만 지긋지긋하게 중노동을 시켜 잠시 회고하기에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악랄한 공산 정권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강제노역을 시키는 지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뒤 얼마 후 지병으로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나마 지옥의 일원이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이나 심판을 번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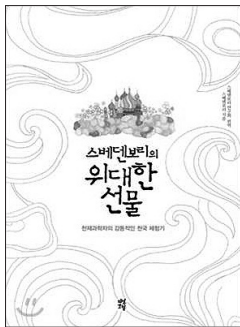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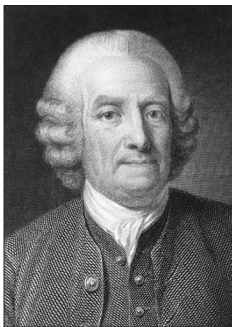
살아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 9:5~6)

지옥은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떠난 자가 가는 곳이며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교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지옥 체험학습을 통해 회심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일까요?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로, 이 노인의 체험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두려움이나 경험들이 반영된 깊은 꿈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신비주의 과학자 스베덴보리

추종자들에게는 아이작 뉴턴과 비견된다는 스웨덴 출신 과학자 에마누엘 스베덴보리E. Swedenborg(1688~1772)는 과학자로 살다가 57세에 심령체험을 한

후 27년간 영계를 오가며 탐방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체험들은 생생한 증언으로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꽤 많이 팔리고 있으며 스베덴보리 학회가 있어서 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와 그의 스테디셀러

그는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인 예루살렘교를 창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새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종교는, 외형은 매우 성경적인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으나 실상은 기독교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의 우화로 보고, 스베덴보리의 영계체험기는 성문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교의 눈에 띄는 교리는 양심에 의해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의 심판을 받는데 악한 자는 천국의 태양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 등입니다. 신비주의자인 스베덴보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데도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처럼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사실 악마를 숭배한 것이며 종교다원주의의 과학적 사도쯤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이지만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질서를 가르치며 창조주를 간접 증거하므로 거 기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천국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국, 지옥행의 기준은 사랑의 성취도이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유일한 잣대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부정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상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삼중고를

이긴 인간 승리자 헬렌 켈러H. Keller도 사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스베덴보리의 사상에 크게 감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을 보면 헬렌 켈러는 성경이 아닌 스베덴보리의 체험에 의존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



블라바츠키

나는 스베덴보리의 영계탐방기를 읽고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나는 장애인인 아님을 알았고, 다시 젊음을 되찾을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스베덴보리의 신비주의 사상은 뉴에이지 사상의 뿌리가 되는 신지학회를 창설한 헬레나 블라바츠키H. Blavatsky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라바츠키는 고대의 사악한 사탄숭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립한 신지학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뉴에이지 사상을 가능케 한 산파로, 부패한 성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스베덴보리 사상의 정체성은 블라바츠키가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마귀 루시퍼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만나고 온 여전도사

이 경우는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는 보통 교단 교회의 여전도사입니다. 그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주기철 목사를 만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천국에 오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받고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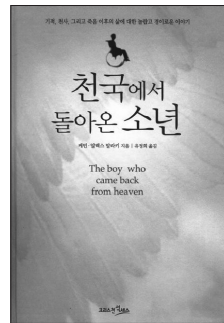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간증을 전도지로 만들어 뿌리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이 이 간증을 자기네 교회 전도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간증에 신빙성도 없지만, 특히 내용에서 행위 구원의 교리를 강력히 전하고 있어서 위험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간증의 핵심은 이미 믿은 자들도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으니 조심하고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 취소의 잘못된 교리이기

도 한데요, 정작 본인은 천국을 예약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 투어를 했다면서 교계를 향해 바른 행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주제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83~84쪽 참고).

천국에 다녀왔다는 말라키의 거짓말

미국의 알렉스 말라키라는 아이는 6살 때 병을 앓다가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하여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과 영화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11살이 된 말라키는 그 모두가 거짓이었고, 성경을 본 적도 없다고 고백한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책은 엄청나게 팔려나간 뒤였지요.

말라키는 “천국에 가봤다고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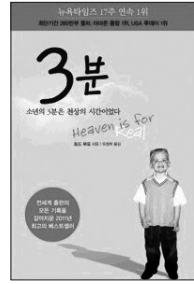
체험 당시 말라키의 투병 모습과 간증 책

했다. 천국에 갔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다. 이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부터 말라키의 아빠와 이혼한 엄마는 그간 책의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이 책이 잘 팔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괴롭다는 말을 했었지만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고, 출판사는 모든 책을 회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 사람도 있겠지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아이 콜튼

미국의 작은 교회 목사 아들인 콜튼이라는 아이가 4살 때 천국을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 <3분>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팔렸습니다. 역시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되기도 했지요.

여행 중 아파서 장염인 줄 알았다가 다시 맹장 파열로 입원해 수술했던 며칠간 경험한 이 꼬마의 간증은 정황적으로 진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책의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과거에 유산된 누나를 천국에서 만났다고도 하고, 당시로부터 25년 전에 사망한 생면부지의 증조부를 만나기도 했다는 증언 등이 신빙성을 더합니다.



콜튼 부모의 책

아이들도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사악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가족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단 귀신론에서, 떠도는 혼령이 사람에게 붙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도 인정해야 하고,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빙의의 개념도 인정해야 합니다. 무당들의 굿 같은 데서 보듯이 죽은 부모나 가족이 나타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까지 흉내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본인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영이 고인의 개인사를 다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보여 줘도 사람들은 신기해 하면서 어느 정도 믿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을 인정하게 되면 이방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영의 역사까지도 다 인정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기한 일은 마귀도 따라 할 수가 있지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내렸던 재앙을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몇 가지는 흉내 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말하면 성경 밖의 다른 논리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논리로 진리를 말하면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5. 천국 지옥 간증의 특징과 문제점

이 많은 간증들이 왜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크리스천이 조심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증언이 서로 다름

일단 맨 앞에 언급했듯이 너무 많은 각기 다른 간증이 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거짓이거나 모든 간증이 거짓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모습의 천국을 보여 주신다고도 해석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 안에서 비슷한 것들을 봅니다. 서양 사람은 으리으리한 성을 보고, 한국 사람은 고대광실의 기와집을 봅니다. 민족에 따라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을 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목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 기억된 잔상에 의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수사할 때도 대질신문을 해서 서로 말이 안 맞으면 한쪽은 거짓으로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2) 연약한 사람과 여성들이 많음

천국 지옥 간증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전합니다. 열이면 7~8명이 여자입니다. 이는 무당이나 점쟁이도 여성이 더 많은 이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정신적으로는 더 민감하고 신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에 빠지기가 남자보다 쉽고, 악한 영의 공격에도 취약할 만큼 신체가 더 연약한 탓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도 의외로 많은데, 이것 역시 그들의 영이 어른에 비해 맑고 영적인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간증자들은 투병이나 사고로 맞이한 의식불명의 혼수 상태에서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보통 사람은 이런 체험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런 체험을 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체험자들은 유독 자신들이 큰 은혜를 입고 특별한 체험을 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영적인 현상이자 교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악한 영들에게 속기 쉬운 것 역시 뱀이 이브를 먼저 공락했듯이 여자가 아닐까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3) 불법을 저지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즉 어떤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고후 12:4)

그래서 그는 낙원에 어떤 이가 갔다는 말만 하고, 자기가 들은 말이나 본 것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간증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상에 되돌아가서 이것을 증언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성경과 다르게 불법을 조장하시는 분일까요?

4) 돈벌이와 연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간증은 몇 가지 방법으로 대개 돈벌이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대개 책 출간, 방송 출연과 간증집회로 출연료를 벌고 명성도 쌓아갑니다.

허접스러운 간증일수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 내는 헌금이 장차 천국과

지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은 그들을 초청하는 목사들의 입을 대신하게 되고, 교회의 헌금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초청자와 초빙된 자는 윈윈 전략으로 천국 지옥 간증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였다면 무지의 결과입니다. 흔히 땅에서



십일조와 헌금을 많이 안 하면 천국에서 움막집에 살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은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양극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성이 사라져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지 않고 더 기쁘게 됩니다.

5) 그들이 다녀온 곳은 어디인가?

간증자들의 레퍼토리 중 가장 많은 것은 황금으로 된 천국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모든 역사가 끝나고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 21:1~2)

이처럼 역사가 다 끝나는 미래에 마련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증자들은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에 갔다 왔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새 예루살렘이 이미 오픈(?)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황금 도시

와 황금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은 대체 어디에 갔다 왔다는 것일까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계 21:21)

이처럼 순금, 황금 길에 대한 이야기는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계시록 21장에서야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묘사입니다. 아마겟돈과 미래의 일을 보았다는 간증자들도 있으니 어쩌면 미래로 다녀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루뭉술하게 황홀경에 들었다가 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인지, 지금의 셋째 하늘도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잘못된 교리와 교만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교만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 하면 사람들은 분명 그를 떠받들 것이고, 체험자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증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자기자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고전 2:1)

그런데 간증자들은 이미 체험(?) 전부터 교만한 상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장차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옮겨지지 않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까지 지옥을 피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결국 구원은 마지막에 결정된다는 주장인데)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앞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 것처럼 천국을 예약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어 내세에 대한 경고를 하게 하신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7) 전도 효과 미지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 가는데,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내 아직 살아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라도 지옥의 실존을 알려 거기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합니다. 대언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소용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눅 16:31)

그러므로 다 핑계입니다. 각종 신기한 간증을 통해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믿음들조차 어떤 두려움에 의한 것이지, 바른 교리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지 않는 회심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8) 악한 열매와 무책임

이런 간증들은 대부분 한참 주목을 받았다가 다른 것으로 시선이 옮겨지곤 합니다. 또한 토마스 주남 등의 경우처럼 명백히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한참 냄비처럼 끓다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하는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설 리 없습니다. 한편 그런 거짓 간증을 통해 피해를 입고 헛된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큰 피해는 시간과 책값이 아니라 왜곡된 천국관과 잘못된 교리로 인한 신앙의 부실함일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 더 큰 자극을 쫓아다니며 평생을 허비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9) 성경의 신빙성과 권위 약화

아마도 마귀의 가장 큰 목표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방법과 천국, 지옥 등이 자세히 묘사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최선의 내용이자 지식의 적정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이 인간의 손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없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개 개인들이 전하는 자극적인 간증은 철석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확고하게 바로 서 있다면 아무도 그런 간증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 성경은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세뇌를 시켜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방황하면서 구원의 확증을 위해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유의 간증입니다.

그들의 간증에는 구원의 바른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원의 바른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나오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천국과 지옥 체험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니 성경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이 이런 간증이므로 그것은 태생적으로 성경과 관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적 체험에 불과합니다.

6. 성경 밖의 천국과 지옥은 없다

여기 소개한 것 외에도 무수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끄러웠던 다미선교회에도 천국을 보고 온 간증자가 꽤 있었는데, 그들은 천국에서 축구경기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방송국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일부분은 사실이 아니냐, 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도 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그리 따지느냐, 간증들을 통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은 다 소용 없습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리라. (롬 3:7~8)

결과가 좋다 해도 거짓은 안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얻는 열매는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짓을 용납하면 큰 악한 결과를 내는 법입니다. 이런 작은 거짓 간증들은 교계가 큰 거짓과 위선으로 물들어 있음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개인적 간증은 서로 확인하고 공감할 수도 없으려니와 많은 성경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우습게 아는 신자들은 이런 속임수에 잘 빠집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모순 속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다른 복음을 쫓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체험 간증입니다. 이는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확증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전하는 간증은 귀한 것이고,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은 개인의 체험이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은 동일하고, 구원의 길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때로 간증에서 조금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체험이라는 것들은 웬지 신령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폐해가 큼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과 미리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

니다. 이는 점쟁이에게 미래를 점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급한 신앙이며,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이교도적 초등 원리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태아는 엄마와의 만남을 꿈이나 유체이탈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자궁 밖의 세상을 알 수도 없으려니와 알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최상의 안락함 속에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엄마와 아빠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만나고 싶더라도 때가 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삶 다음에 갈 곳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맡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일단 구원열차만 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적지를 알고자 애쓰는 것은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것들을 따라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막 13:21).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이 증거합니다. 환상과 꿈, 영적 체험과 직통계시 속에서 천국과 지옥 투어로 이끄는 존재가 아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타인에게 전도를 할 때도 잘 모르는 길을 선불리 나서서 안내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이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아무도 실체를 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3부 | 죄악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1. 당신의 출발지가 '죄악역'이다

구원 열차를 타는 역은 어디일까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이 열차는 당신을 위해 멈춰 서서 당신을 태우고 갈 것입니다. 각자가 타는 그 지점이 곧 열차가 정차했다 출발하는 역이 되는 것인데요, 그 역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역은 '죄악역'입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구원열차의 개인적인 출발은 시작되는 것이므로 탑승객 모두는 각자의 죄악역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땅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 애써도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며, 언제든 데려가기 위해 이미 예약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죽음의 지배자에게 끌려가는 시기는 각기 달라도 언젠가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불시에 사망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잔인한 참수의 칼날 앞에 선 포로들처럼 말입니다.

그곳은 마치 죽음의 땅이 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원초적인 위협이 되는 죄악역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초대장을 가지고 표를 산 사람이 드디어 개찰구를 나서는 일과 같습니다.

회개는 믿음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행 20:21)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짝을 이루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죄들의 사면을 얻어 죄악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죄의 용서를 위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눅 24:46~48)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증인인 너희들은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2. 회개는 감정이 아닌 회심이다

회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어제 지은 죄, 방금 지은 죄,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새벽기도나 철야기도회에 나가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또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등등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회개로 과연 죄악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지을 텐데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니 낱알이 다 아될 수도 없고, 내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미 잊어버린 죄가 얼마나 많은 데 어찌지요? 그냥 매일의 누적분까지 패키지로 다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할까요? 그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낼 수 있고, 일일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이단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단번에 받는 구원을 오해하는 방종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에서 짓는 죄의 회개와 구원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의식 없이 그때그때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회개에 대한 그런 단순한 생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런 일상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회개는 영어로 리펜턴스repentance입니다. 즉 리펜트repent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이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죄를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도망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죄의 반대 방향,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성경 말씀이나 경고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 왠지 찝찝하고, 어떤 이의 간증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회개했는지, 그런 기억도 없고, 진짜 통렬하게 가슴을 쥐어짜는 회개가 있었는지 자기를 돌아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사람도 갑자기 그런 눈물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도 흉악범이었거나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눈물을 펄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은 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더욱 두렵고 부끄럽고 한탄스러워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눈물은 자기 연민이나 후회, 되돌릴 수 없는 회한과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슬픈 분위기를 돋우는 찬양에 회개를 촉구하는 인도자의 드라마틱한 멘트, 앞뒤 좌우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찬송의 가사 등에 심취해 무아지경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나서야 느껴지는 어떤 후련한 느낌을 회개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회개를 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변화 없이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맑은 정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취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젖어서 자기 자신조차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롬 12:3)

회개는 눈물일 수 있지만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돌이키는 ‘회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행 3:19)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을 태운 기차는 죄악역을 뒤로 하고 달려 갑니다. 구원열차는 후진을 모르는 기차입니다. 다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구원열차에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차 안에서도 실수로 넘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악역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위치상 여전히 죄를 짓는 몸이지만 신분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행 11:18)

잊지 마십시오. 죄로부터의 돌이킴, 즉 회개는 죄악역을 벗어나 생명으로 떠나는 필수 코스입니다. 🎵



다시 내리지 않죠

4부 | 성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

1.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열차는 타면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열차는 중도에 사람을 태워주는 해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무도 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원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마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는 것처럼 표현된 것으로 오해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원리에 적용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구원열차에서 다시 내리지 않을까요?

한 20년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흔히 택시 기사님들은 거의 정치 평론가

나 민심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만난 분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시더니 경제 문제로 화제를 바꾸어 국산 자동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차의 성능이 좋진 않아서 불만 사례가 많았는데, 그분도 자동차 3사의 차를 다 사봤지만 수준이 거기서 거기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기사님이 한번은 차를 샀는데, 차를 인수해 몇 분 달리기도 전에 덜덜거리며 바퀴를 지지하는 봉의 평행이 정확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길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바꿔 달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물론 차를 바꿔 간다는 것을 들어본 일은 없지만 이건 소비자의 조작 미숙이나 정비 불량이라 아닌, 너무나 명백한 방금 나온 새 차의 결함이니만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출고실 직원은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차는 백 번을 고쳐줘도 교환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기사님이 거듭 항변하자 그 직원이 하는 말.

“죄송하긴 한데요, 애를 낳았는데 잘못 나왔다고 도로 엄마 배 속에 보냈다가 다른 애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으니 선생님이 이해하세요. 그런 선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길을 돌려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차를 샀다가 한 시간이든 하루든 지난 후에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차를 딜러들에게 많이 할인한 가격에 판다는 것은 들어 보았습니다만…, 완벽한 검사에 합격해야만 출시하는 것이라 그런 모양인데, 듣기에도 참으로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들어 파는 물건도 이렇게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중에 바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말하자면 신제품인 것이지요. 우리

의 상태가 조금 부실하고 빨리 약해져도 교환이 절대 불가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리콜 제도가 있지만 이는 심각한 집단적 결함을 제조사가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밖의 새 차는 바꿔주지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것이므로 더욱 물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 5:17)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갈 6:15)

이런데도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거듭남은 본 어게인born again, 즉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회사 직원 말처럼 아기는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 3:7)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2)

2. 자기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이 취소된다... 하나님이 줬다 뺏는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삶 속에서 짓는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자가 구원을 계속 받은 상태로 뽐뽐하게 버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치면 한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사실 자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상속 언약을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히 7:22). 주님은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히 7:24~25)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고 낙오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아직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실, 자기 믿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 2: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건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또한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처음
과 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지켜지는
것입니다.

3.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떤 일이?

그래도 구원이 취소된다고 믿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김 집사 :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부부싸움도 크게 하고, 거짓말도 오십 번 넘
게 하고, 술도 마셨습니다. 아무래도 구원이 취소됐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엔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주일에 침례(세례)를 또 받아야겠어요.

목사 : 자, 오늘 다시 구원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주에도 절반
넘는 분들이 잃어버렸던 구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신청한 여러분은 회
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박 성도 : 예수님은 이미 믿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믿었었다고요. 마음으로
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이 취소됐으니 이젠 어
떡하죠?

목사 : 흠... 그래도 좀 더 세게 믿어보세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
음이니 늘 삶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 성도 :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바빠서 침례는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어차피 한두 주 버티다 또 취소될 텐데요, 뭐.

박 성도 : 지난달에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장 집사님은 어떡하죠? 아무래도 그분도 구원이 취소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 : 음… 아무래도 그랬겠지요…. 행함이 없었으니까….

박 성도 : 그런데 왜 천국 환송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식을 했죠?

오 전도사 : 듣고 보니 그렇군요. 목사님,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지옥 배웅예배’라도 신설할까요?

목사 : 허… 허…….

김 집사 : 목사님, 저는 교회 그만 다니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대부분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으니 상태가 좋을 때 타이밍 맞춰 딱 죽어야 되잖아요. 구원이 거의 로또에 가까운데 그걸 기대하고 평생을 벌벌 떨며 살긴 싫어요. 제가 중병에 걸리거나 임종을 맞을 때 다시 잘 믿든지 해야겠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땐 꼭 와 주실 거죠? 혹시 교회 문을 닫더라도 목사님 개인 휴대폰 번호는 바꾸지 말아주세요.



상황이 좀 우습다고요? 그런데 구원이 취소된다고 치면 틀린 말은 없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합니다.

“에이, 말이 그렇지, 뜻이 꼭 그런가? 착실히 크리스천답게 살라는 거지.”

그럼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착실히 살라고만 하지, 왜 구원이 취소된다고 겁을 주는 걸까요?

4. 교회에서 배교하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히 6:1~2)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회개와 믿음, 그것을 상징하는 침례,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심판에 관한 기초를 반복하거나 다시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런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한 주장으로 취급받던 것이고, 20~30년 전까지도 배격하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서 휴거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징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끝이 온다고 했듯이(살후 2:3), 누군가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성도의 휴거라는 주장과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를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곧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을 떠나고, 명목상의 교회는 믿음에서 떠나 배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믿었던 자들이면

떠난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교는 말 그대로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딤후 4:1)

불신에서가 아닌 믿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부터 마귀의 교리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딤후 4:3~4)

그러므로 믿었던 자들이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배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물론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회가 전부 다 배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전부 다 불교나 통일교로 개종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전부 텅텅 비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들 자기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아무리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리가 흐트러져도 아직까지 좋은 목사들도 많고 나름대로 애쓰는 교회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집단적 타락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맞게 해석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배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교의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집단적 진리 거부 현상이 생길까요?

배교란 무엇일까?

일단 배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극장 개봉 영화는 아니었고 선교용으로 제작된 필름이

었는데, 조선 개화기 때의 선교사들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개신교 1세대 조선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종교의 자유가 없던 1880년대, 극히 일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힘을 합쳐 예배처를 짓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서양 귀신을 섬긴다며 핍박이 이어지고, 선교사들은 처형을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맞습니다. 그러던 중,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 예배자들을 잡아들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기독교를 버리라고 강요합니다. 배교의 징표는 한 성도의 십자가 목걸이를 빼앗아 땅에 던져놓은 것을 밟고 지나가면서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사형입니다.

잡혀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밟고 저주하며 지나갑니다. 그중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밟고 나서도 애태우는 사람이 있고, 미련 없이 십자가를 밟고는 저주하고 침을 뱉으며 훌훌 털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이끌던 조선인 몇 명은 끝까지 십자가를 밟지 않고 거부합니다. 결국 붙잡아 주리를 틀고 갇은 고문을 하는데, 그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땅에 파묻혀 목만 내놓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망나니의 칼에 목이 잘리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같은 시간, 드디어 조정에서 서양 세력의 끈질긴 요구와 압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칙령이 극적으로 통과됩니다. 그것을 관철시킨 파란 눈의 선교사는 지금 죽게 된 이들의 지도자였는데, 칙서를 받고 군관 몇 명과 황급히 말을 달려 위기를 맞은 조선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지만 이미 교인들은 상투가 다 풀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목만 빼고 온몸이 땅에 묻힌 상태... 벌써 망나니는 큰 칼에 막걸리를 뿜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태양에 번쩍이는 망나니의 칼과 말을 달리는 선교사의 애타는 얼굴이 오버랩 됩니다. 배교한 사람들도 구경꾼들도 마치 갈보리 언덕에서처럼 숨죽여 망나니의 마지막 춤사위를

지켜봅니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짧기만 한 춤이 서서히 끝나고, 망나니는 결국 칼을 휘두릅니다. 바로 그때…,

“어명이요~~!!”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 모두의 눈이 쏠린 곳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슬로비디오로 갈색 수염을 휘날리며 칙서를 펴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파란 눈의 선교사였습니다!!

망나니를 포함한 모두가 놀라 동작을 멈추자, 선교사는 임금의 칙서를 펴들고 보여 주며 당장 집행을 멈추라고 다급히 소리칩니다. 이때 터지는 관객의 박수소리… 드디어 구출 받은 조선인 교인들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선교사와 열싸움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물론 격한 박수를 보내며, 막연하지만 언젠가 닥칠지 모를 배교의 위기 때 신앙을 지키리라고, 마치 독립군처럼 비장한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중학교 때, 이번에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후에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미션스쿨도 아닌 공립 학교였는데 그땐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의 대쪽 같은 신앙심과 민족정신에 또 다시 폭풍 감동을 했는데, 거꾸로 박힌 못판 위를 피 흘리며 걸어갈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며칠 굶긴 후 뒤로 손을 묶어놓고 앞에는 산해진미 밥상을 차린 뒤 그 앞에 천황의 사진을 놓아두기까지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리를 숙여 밥을 먹다 보면 천황에게 머리를 숙이는 꼴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허리를 숙이지 않았고, 그렇게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에 나오는 정서는 한국인 특유의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신앙적 절개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환난 후 휴거의 종말론을 배울 때는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구원의 바른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못 이겨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겨 구원과 천국을 빼앗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풀리는 의문과 이단 교리의 쓰나미

그런데 요즘은 집단적 배교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것이 예상됩니다. 이미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등에서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한말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식이 전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의 표면적 배교를 떠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로 그간 의문점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오래전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 중입니다. 그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그 큰 축을 이루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는 이단 부흥의 방조입니다.

현재 기독교 이단 사이비는 무척 많은 수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 교회들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일어서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무속적, 전통적 신앙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이단에 연루된 사람은 약 200만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억울하게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건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왜곡한 집단입니다.

2단계는 이단을 정죄하고 구분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단이 많다 보니 위협을 느낀 기존 개신교단들은 위기 상황을 친정 격인 천주교 식 통제로 해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단 매뉴얼을 제정하고,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공격자인 자신들은 정통이라는 논리를 만

들어 이탈자를 단속하고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이라는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면, 이단만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진영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맞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단적 신학자도 용서하고, WCC 같은 배교 집단의 일에도 동참합니다. 천주교와도 손을 잡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들이 정죄했던 이단까지 필요하면 용납해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정통입니다. 이단을 지목할 자격을 지닌 권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기를 들기 어렵습니다. 규모만 다르지 과거 국가 교회의 권력과 비슷한 힘의 원리입니다.

3단계는 정통 안에 이단교리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정통 안에서 마음껏 활동합니다. 정통이라는 무리 안에 독약을 타도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될 테니까요. 정말 무적입니다.

그러면 독약은 무엇이 좋을까요? 갑자기 신천지 교리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되고, 지능적으로 해야겠지요. 물론 그것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점점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독을 아주 조금씩 먹어서 그 양을 늘리면 나중에는 꽤 많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해서, 추리소설에 두 사람이 똑같은 음료를 마셨는데 상대방만 죽는 완전범죄 스토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귀와 그 동조자들은 악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성경과 복음에 둔감한 자들이 말씀에 눈 감고, 진리에 귀 막으며, 쓴 것을 삼키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정통 사이

요즘은 좋은 설교나 책을 권해도, 이 사람이 어느 교단 소속이냐, 이렇게 먼저 묻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은 볼 것도 없고 소속 교단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이 크다고 다는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 모 교단에서는 프리

메이슨을 과도하게 비판해도 이단, 베리칩 이야기를 꺼내도 이단이랍니다.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렇게 전략의 대가인 그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성도들을 배교로 이끌 그 빛깔 고운 독약은 타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천후 다목적 약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믿음에 행위를 더해 받는 구원 또는 천국’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모조품 교리의 고전으로 늘 죄에 넘어지기 마련인 인간의 종교적 심리를 파고드는 효과 만점의 처방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 ‘믿음 + 행위 구원’, 더 나아가면 ‘선행과 바른 양심으로 얻는 구원’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설마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건전한 교회들에 먹히겠느냐고 안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저명한 저술가나 목회자, 신학자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그 세력의 크기 때문에 아무도 건전성을 의심하지 않는 모 교단의 저명한 목회자들 중 일부는 이미 이런 교리를 애매하게 섞어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은 그 실천의 기준은 어느 선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충족시키는 행위의 선이 어디일까요? 행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거나 행위가 하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 쪽에도 쓸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마귀는 참 교묘하지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단 구원파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기네 지도층은 호의호식하면서 신도들을 억압하는 그들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를 악용함으로써 본질을 혼드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라고 A부터 Z까지 다 이단은 아니지요. 다를 이뿔, 끝 단端, 이단은 비슷하게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교리는 정통이라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있습니다. 대개는 순수하게 잘 해보려는 이들이 그 열정을 이용당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교주와 리

더 그룹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그것으로 신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음 짝달짝 못 하게 군림하며, 자신들은 방탕하고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사회의 시선이 쏠린 구원파에 대해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분에게 방송 기자가 묻자 대변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의 취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원 취소는 없다는 교리가 이단 교리로 잘못 알고 있는지, 더 설명을 하려던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사는 그 지점에서 자르고 편집을 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된 이단 교파 때문에 제대로 된 교리까지 거짓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 기독교, 복음, 침례 다 맞는 것 아닌가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운 자들이 불법과 거짓을 행하니 기독교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교리를 비판하는 정통 교단의 교리는 얼마나 건전한 것입니까? 정통이라는 이들이 비판하는 교리들 중에 구원의 순간성과 영속성이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교단에서도 구원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을 비방하면서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님의 구원 선포 이후 죽어가면서 아무 선행도 하지 못했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구원이 더 진전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직후 이 강도가 쇼크사라도 했으면 그는 아직 점진적으로 뭔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옥에 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구원은 그 속성상 순간적이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향후 어느 시점을 잡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선물인데, 그 영원성의 시점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일단 믿었으면 남은 인생에서 더 체크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파처럼 바른 것을 가지고도 이단이 돼버리니 반대편의 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실이 돼버리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단문제 연구하는 분의 인터뷰를 보더니 대변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군요.

“당신네 주장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구원에는 취소가 없다는 저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맞는 거라고 하니, 그럼 당신도 이단이라고 묻습니다. 미치고 팔딱 뽀 일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여기까지는 맞음), 그 이후로는 죄의식을 느끼거나 다시 회개하거나 하는 일이 중대한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돌이킴의 의미로서의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뿐이겠지만, 매일 짓는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필요하고, 죄의식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실 자체를 의심한다 해도 그것이 중죄는 아니며, 아직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진리까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강남의 한 대형교회를 세운 옥아무개 목사가 살아생전인 2007년에 ‘행위가 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영원성 교리가 현대판 면죄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면죄부로 악하게 활용하는 것이 문제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영원성 교리가 왜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남겨놓은 그 교회는 이름과는 달리 왜 그토록 사랑이 없고 다툼이 많습니까? 심지어 언제인가는 고소인으로 헌신할 봉사자를 찾는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 몸싸움 등으로 다치면 치료비와 위로금을 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 정도로 이상한 집단이 되어 바른길로 가려는 이들을 억압하는 폭력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후계자를 잘못 선정한 이유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은 문제의 ‘행위가 있는 믿음’ 설교 당시 여러 동료 목사들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설교를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개독교’라고 손가락질당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안일한 구원관이 그 원인이므로 그분의 설교는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인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입니까? 구원관을 바꿔서 인간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구원관으로 바꿀 건가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흐트러질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 구원을 말하고 겁줘도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행위 구원 교리로 돌아서고 있고, 자신들도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을 취하면서, 그때그때 다른 설교로 성도들에게 명확한 것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5. 신학은 어떻게 건전한 교리를 망치는가?

얼마 전 신학계 뉴스를 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우 저명한 신학자들이 칭의의 교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새로운 구원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이 새롭다고 하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 거의 금기시된 칭의의 교리를 부정하여 논란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의 1970년대 저서에서 처음 제기된 이 관점이 본격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여 년 전인데, 사람들이 이런 이단 교리에 새삼 관심을 갖는 이유는, 참된 복음을 의심하는 마음과 자기 의를 숨기고 있다가 그럴듯한 학자가 터뜨리자 본심을 내비치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심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새 관점의 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대표적 신학자 중 한 사람은 이신칭의를 두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언하는 단계이며, 다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성령님이 모든 삶을 근거해 그를 최종적인 자신의 백성으로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칭의와 성화를 하나의 칭의 교리 안에 통합시킨 셈입니다. 이게 말이 복잡하지,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봐야 구원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히 퍼지고 있다고 위의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는 이 개념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

리에에는 그리 힘이 없어 보입니다. 위낙에 거물급 신학자들의 주장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문제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가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저명한 신학자들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관점은 90년대에 한 신학자가 연구해왔다는데, 10여 년 전에는 김모 교수가 저서를 통해 소개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김 교수는 약간 도인 같은 분위기의 신학자로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의 교수입니다. 한국 신학자로는 놀라운 경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원흉 격인 풀러를 대단하다고 보기 보다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지만, 학구적인 일반인들이나 목회자들 중 많은 분들이 성경이나 심지어 예수님 말씀보다 이런 양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학위와 세상 경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멋대로 비평하고 입맛과 철학에 따라 가위질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수많은 학설 중에 무엇을 따를지 몰라 결국은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선행과 바른 양심을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하며 슬금슬금 양보합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의 강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서 어떤 일획을 긋는 명쾌한 답이 나오기를 모두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를 모은 그 김 교수의 강의에서 정말 획을 긋는 답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천주교의 고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봐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그런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학설로 우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명백한 이단 교리를 말해도 그분의 학식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교수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잠잠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색출할 것은 이단 조직이 아니라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단 조직이 받을 못 붙입니다.

이 신학자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자 다들 학식에 기가 눌려서 그런지, 확고한

구원관으로 영단번의 구원을 배우고 확신하던 사람조차 그런 논쟁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겸허하게 불가지론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이제 성경은 ‘답 없는 책’으로 전락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그것은 일단 서류를 접수한 것에 해당하고, 합격자 발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 모두가 입학할 수 있지만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확신한다’ 하면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이십 년 전만 해도 구원에 대해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서 억지로라도 대답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급하고 미성숙하고 뭘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로 취급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념이 바른 말씀이나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찬송가 책을 보다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 날’이라는 가사 첫 줄이 제목이지만 원래 ‘기쁜 날’, 즉 ‘해피데이(Happy Day)’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원 가사를 왜곡한 찬송이 많지만 이 찬송은 거의 원문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fixed my choice) 그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기쁘며, 온 세상에 나가 무슨 간증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며 늘 기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랍다며 전한 내용은 이 가사가 아니라 거기 달린 찬송가 해설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교의 기쁨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노래로서 영국 왕실에 서도 자녀들의 신앙적 통과의례 때 즐겨 불렀고, 오늘날 감리교나 침례교에서도 침례(세례) 의식을 거행할 때 헌신송으로 많이 애창하고 있다. 거듭난 직후의 기쁨이 가사 내용 전반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후렴에서는 중생의 날을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날로 소개한다.

중생(重生)이란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중생의 두 가지 요소는 우리 심령이 최악의 오염에서 깨끗해지는 것(정화)과, 그것이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것(갱생)이다. 그러나 중생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생활을 개선해 얻어지는 산물도 아니다.

중생은 자기의 옛 모습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생활의 첫 출발이다. 이 중생의 영향력은 이성 및 마음과 의지, 그리고 영·육·혼으로 골고루 퍼져 나간다. 그리하여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아직 완전한 성숙에는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육체의 온갖 더러운 옛 성품과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걸어가려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다(롬 7:22~23).

어떻습니까? 건전하고도 정확한 해설이죠? 그런데 요즘은 구원 교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성도들의 삶이 부실하고 목사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교리의 원칙은 똑같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생명의말씀사가 펴낸 이 찬송가는 개신교에서 널리 활용하는 것으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던 내용입니다. 이로써 구원 취소의 교리를 말하는 분들은 이것이 비단 저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부류의 새로운 논리나 반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조차 책을 보면서 부르면 가사에 집

중할 수 있는데, 영상에 띄워놓고 부르니 기계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화면을 넘기는 사람이 잠시 멈칫하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성도를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같은 노래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산 자들의 노래입니다. 아직 몸이 죽지 않았으나 혼의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죽은 뒤에야 구원을 알 수 있다면 죽은 뒤에 불러야지요.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죽는 날이 ‘해피데이’가 되겠군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노래를 못 합니다. 남아서 장례식 치르는 자들이 대신 불러주려 해도 죽은 자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대신 ‘해피데이’를 축하해 주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입니다.

또한 위의 해설이 말하듯이 우리의 영적 전투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며, 성도간에 승리하라고 말할 때도 천국에 가기 위해 악한 세력과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승부가 났지만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고 살며 다른 이들을 살리자는 의미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팔린다는 <이기는 자> 같은 책에는 자기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 나중에 죽어서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로 구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24시간만 따라다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많더군요.

6. 구원과 성화의 지점

일부 사람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새로운 관점’이 칭의와 성화, 구원과 그 이후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고, 경계선을 흐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육)를 찢러 나누듯이 무엇이든 조개는 것이 진리이고,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이 바른 것이며, 두루뭉술하게 섞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혼합주의입니다.

행위가 소용되는 시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쇼트와 프리 종목으로 순위를 다 결정했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쯤 갈라쇼를 하죠. 갈라쇼는 대개 1~5위 선수들과 유명한 초청 선수가 함께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여기서는 넘어져도 됩니다. 잘하면 박수도 더 받고 더 좋은 선수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 공연 때문에 금메달을 빼앗기고, 동메달이 은메달 되고,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시합이 아니라 승자들끼리 벌이는 선의의 경쟁이고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겨루는 겁니다. 본 경기와 갈라쇼는 완전히 경계가 지어진 것이고, 스케이트를 타는 목적조차 다르므로 정확히 나누어야 할 종목입니다. 그런데 갈라쇼 하다가 넘어진 것을 보고, “저 선수는 이제 금메달 취소다”, “메달 수여는 갈라쇼까지 끝나 봐야 한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쇼트와 프리가 구원이라면, 갈라쇼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한 가지 예외로, 도핑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마약성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미 탄 것도 박탈되는데요, 아예 참가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거절되는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맑은 정신으로 믿고 받아야 합니다. 마약성 약물 복용처럼 반칙을 해선 안 되고, 무아지경에서 은사나 방언이나 세례, 치유 같은 것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맴돌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구원 취소가 아니라 ‘구원 착각’에 해당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게임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메달권에 든 것처럼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

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양극화의 세상이 아니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을 보상은 분명히 서로 다르고 형벌도 차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공짜로 받고,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은 서로 다르게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물과 공기 등은 모두 공짜로 주어지는 반면, 바른 행위나 일은 보상으로 연결되어 각자 다른 상대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모자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양극화의 세상은 아니지만 경쟁은 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고전 9:24~25)

이처럼 모두가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의의 경쟁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으나 우리의 모든 행위(일works)를 하나님 앞에 회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work)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고전 3:11~15)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다 태워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행위 구원이 사실이라면 이런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의 열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보상을 잃더라도 구원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행위는 보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을 과거에 소급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을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국가 사람은 다른 나라에 살아도 자기 나라 법에만 심판을 받게 하는 특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룰대로 해서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다른 법을 다시 가져와서 예전 일을 번복한다든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구약 율법을 가져다가 판단해서 정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런 구원 번복, 구원 취소의 교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이단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키는 것은 명백한 배교입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타 종교의 구원방식과 동일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종교다원주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인간의 소원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이 있을 터인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가족은 지옥에 갔지만 당신이라도 꼭 천국에 가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면전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들 죽은 가족이 지옥이 아닌 좋은 곳에서 못다 한 쉼을 누리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나중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는 못 해줄망정 모질게 이미 지옥 갔다고 말하면 크게 반발하면서, 먼저 간 자기 가족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고,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들보다도 훨씬 착하게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살았던 소시민인데 왜 지옥에 가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들의 애달픈 사정이 이해가 갑니다. 가족이 좋은 곳에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희망 사항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의 교리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나 양심이나 선행이 부족해서 사람을 마귀의 형벌 장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거부한 죄 때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 16:8~9)

실제로 모든 인간은 악하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을 수 없으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신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일을 선택해 믿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모든 종교를 통한 구원, 양심과 행위를 통한 구원, 더 나아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구원을 얻거나 윤회를 통해 삶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얻어 신이 되는 경지에 이른다는 이야기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교리,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어도 정답은 단 하나 뿐입니다. 그럴듯한 교리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원주의적 관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근본주의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 서로 비방하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내의 행위구원 교리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으로 가는 내세’의 개념과 비슷해서 그들과의 교류와 연합을 훨씬 부드럽게 해주며, 기도의 누적이나 봉사과 헌신으로 각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각자 다른 종교를 통하지만 결국 하나의 절대자로 귀결된다는 종교다원주의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배교라는 말이 심하다 생각될지 몰라도, 그런 생각의 끝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력히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늘 때리는 가장 아픈 성경구절 중 하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약 2:17)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씀은 ‘구원의 요건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습니다. 말뿐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미 믿은 사람이 부족한 행실을 보이면 이미 받은 구원이 사라진다는 차원의 이야기 아니고, 정말 믿는 것이 아닌, 즉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아닌, 그저 믿고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온전함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19)

이처럼 마귀도 삼위일체인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구원을 받으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만 하고, 부족함을 보이면 그것은 가짜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최소한... 최소한 한 번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이런 것이므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잘 행하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런 개념을 구원 교리와 기타 모든 지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창녀인(기생이 아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준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해 정탐꾼들을 숨겨 주고 자기 가족들까지 구했습니다. 라합이 그 뒤로 창녀 일을 그만두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창녀가 어떻게 자기 행실을 끊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만 예수님도 창녀와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후에도 그런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라합의 행위를 말할 때, 그의 직업적 도덕성을 따지기 전에 그의 믿음에 관해서만, 그가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 쪼개고 잘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인지 구원받

은 자의 바람직한 행위에 관한 말씀인지 잘 구분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어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개념은 마르틴 루터에게도 성경 전체에서 풀리지 않는 유일한 부분으로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모순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성도의 행위,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실천을 촉구하는 권고의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교리나 기독교 자체에 대한 지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두렵게만 생각해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을 포함해 일생 지속해서 의로운 행실을 충분히 실천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서도 사람의 행위를 그토록 완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 때문에 부패된 피를 지니게 되어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것은 원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만(95쪽 참고), 첫 사람부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구원자가 필요하며,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속성만을 어설피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볍게 여겨 방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과소평가하고, 나아가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목적에 맞게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것이 진리라고 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 8:32)

바른 말씀에서 오는 참된 자유가 바로 구원의 온전한 기쁨입니다.

8. 선행과 고행의 유흥

얼마 전 집 우편함으로 배달된 한 전도지를 보니 앞서 천국 지옥 간증 문제에서 다른 문제의 모장로교회 소속 여전도사의 간증이 길게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는 순교할 것을 계시받은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가서 주기철 목사를 만나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 듣고, 세상에 선포할 경고도 받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주기철 목사님, 죽어서도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 전도지의 내용을 보면, 본격 이단들의 간증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지만, 천국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입에서 금 악보가 나오고 보석이 생겨 집이 지어진단든지, 큰 성과 같은 주기철 목사의 방에 의자와 침대 등이 세상과 똑같은데, 세상이 천국을 모방했기 때문이라든지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국 간증 자체가 예외 없이 모두 거짓이지만 이 황당하고도 그럴듯한 이야기 가운데 주로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부분의 이단적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거꾸로 박힌 못판 위를 걷는 주기철 목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철아, 잘한다. 이 고비만 넘기면 천국이다!”

그러면 못판 위를 걷기 전에 주기철 목사가 처형당했다면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고행에 의해 득도하고 성불하는 이교적인 느낌인데, 마르틴 루터가 고행을 통해 속죄를 받아보려고 애쓰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미 믿은 사람도 고행을 거쳐야만 천국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 여전도사의 천국 간증이 담긴 전도지

대형교회, 개척교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데, 그런 목사들은 지옥행이다. 목사들 중에 천국에 올 자가 너무 적다.

이것은 목사들이 어떻게 출발했든지, 혹은 이미 구원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지금 잘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연히 구원 취소 교리에 해당되며, 무언가 잘해야만 지옥을 피한다는 ‘행위 구원’이 됩니다.



나의 피 값으로 산 내 양과 백성과 종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를 저속하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이 역시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구원 취소 및 행위 구원 개념입니다.

이렇게 잘못으로 인해 중간에라도 행선지가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전하는 자신은 예외이며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건데 자기는 간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지만 당신네들은 위험하니까 정신 차려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거의 신의 경지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일까요?

주기철 목사님, 존경할 만한 분 맞습니다. 모두들 우상인 신사에 참배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거하다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부인 역시 뜻을 굽

히지 말라고, 살아서 감옥을 나오면 안 된다며 함께 그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지요. 이분이 당한 갖은 고문과 고난은 감히 일반 신자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야말로 전설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진짜 전설, 레전드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정말 귀한 분이지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을 전도해서 양아들로 삼은 것은 인간으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선행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끌고 가는 공산군에게 전도를 하다가 총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떠받들 필요는 없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레전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왜 두 인물은 그토록 자주 거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각각 고행苦行과 선행善行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고행과 선행... ‘행行’은 행동,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행위구원론이 인기를 끄는 요즘 이분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기독교를, 정성만 있으면 다 되는 일차원적 종교로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한다든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든지, 땅 밟기를 해서 특정 지역을 영적으로 함락시켜야 한다든지, 뭘 선포하고 쫓아내고 입신하고 뒤로 넘어뜨리고 장풍 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모두가 리액션이 확실한 행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구원과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그런 전도지가 버젓이 장로교 이름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포하는 교회 목사는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렇지 않게 전도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그런 것이 이단 교리, 모조품 교리인 줄도 모릅니다. 그 많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런 것을 단체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9. 종교 다원주의의 길

프리메이슨이니 음모론이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돌아봅니까? 그런 것에 너무 관심 가지면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도 기본은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하는 이유는 음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종교다원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이 야말로 기독교조차 절대자에게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가르치고, 인간은 지금 부족하지만 윤회를 거듭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나아갈 거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윤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에덴동산 마귀의 속임수이고, 신적인 존재에 도달한다는 것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최고의 신이 아니고 더 높은 우주의 절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고 했던 루시퍼의 교만입니다. 이로써 그런 주장을 하는 자는 마귀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부족해서 스승들을 쌓아두고픈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잘 용납하고 교회에 들여 놓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명한 신학자의 말장난에 속아 진리를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서 그들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가 보지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칩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뻔뻔한 것 아닙니까? 바른 교리 말하기 전에 하루라도 똑바로 살아 보라고요. 당신이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많이 알아요? 죽어 봐야 아는 구원,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댈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1~22, 개역성경)

그러나 여기 지어진다는 말은 builded, 즉 과거형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신 주님 안에서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엡 2:21~22, 흠정역)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존 변연의 <천로역정>은 좋은 책이지만 잘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마치 천국을 쟁취하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에 거의 다다라서 죽음의 강을 소망과 함께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마치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크리스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과정은 어떤 관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짜 구원이 염치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은 구원받아선 안 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기분대로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얼마 전 대형서점에 갔다가 희한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저자가 목사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한 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열 개의 관문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한 적이 있거나 간음, 도적질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다윗도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창녀 라합, 기독교인 핍박자 사도 바울, 살인자 모세, 십자가 위의 강도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

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된다는데, 자기가 기억하지 못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이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는 말입니까?

구원 받았다고 자신하는 자, 과연 이 관문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십계명의 열 관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낮은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거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만큼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는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이 맞는다면, 천국은 텅 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사람도 결국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 책 외에 성경도 새로 썼다고 합니다. 현시대에 맞게 성경을 한 권으로 정리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냈더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망상증 환자입니다.

구원에 관해 약속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뭔가 한참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책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쓴 책이 대형서점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점과 거래를 했겠지만 말입니다.

천국 문은 좁은 관문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넓고도 넓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B. Graham 목사가 1993년에 이와 같은 배교의 말을 했습니다.

“(이교도들을 포함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므로 결국 그들은 우리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천국의 문은 이런 차원에서 넓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모든 자가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은 쉽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을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7:13)

모두가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좁아서 커트라인을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학교의 인기 있는 학과의 경쟁률처럼 ‘250 대 1’ 이런 것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눅13:24)

이런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이 많아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커트라인이 낮아서 모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도 지옥을 원치 않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고 구원자에게 순복하는 의인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은 성도의 삶에서 절제를 말하고, 많은 이들이 휩쓸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원리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애초에 좁은 길만을 열어두고 오고자 하는 자들을 테스트를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어려워서, 그분의 능력이 적어서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 59:1~2)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원인은 사람이 그 길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가기 어려워서 좁은 길이 아니고, 가려는 자가 적어서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1~22)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공평하시며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다 나타나는 교통경찰관처럼 함정 단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값 없이 구원을 얻으라 해서 다 몰려갔더니 ‘앞아 번호’ 시켜서 선착순 두 줄만 들여보내는 그런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부르셨지만 대부분이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나
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 5:39~40)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넓은 길을 갑니다. 고생하는 것과 좁은 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통과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림사 12 관문>도 아닌데, 뭔가 어렵게 통과해야 값진 것으로 압니다. 공짜라는데 굳이 거액을 내겠다고 하고, 모두 오라는데 소수만 택해서 불렀다고 소문을 냅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데도 그건 웬지 싱겁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눅 17:18~19)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모두가 나음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이 행동을 통해 온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9 대 1의 경쟁을 뚫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지, 감사하러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어려워서 그 문이 좁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예화는 반드시 구원의 교리에 적용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원받을 자나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늘 적다는 하나의 법칙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열차의 여정은 도착하지 못할까 조바심 내는 불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뭘 필요 없습니다. 앞 칸에 가야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커브를 돌 때, 땅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가 튕겨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전전긍긍해도 그 사람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교회당 안에는 네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 ① 구원을 못 받고 두려워 떠는 사람
- ② 구원을 못 받은 것도 모르고 속 편한 사람
- ③ 구원받고도 걱정하며 벌벌 떠는 사람
- ④ 구원받고 평안히 거하는 사람

뒤의 ③④번은 천국에 갑니다. 그들은 구원열차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두고 한 사람은 평안히 거하고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넘어짐 때문에 좌절하고, 과연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나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읍도 한탄과 눈물로 보내다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오르내림을 반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의도를 몰라서 의심하고 늘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차표 필요 없어요

5부 | 구원이 공짜인 이유

1. 구원에 필요한 것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줄이고 줄여서 딱 한 문장만 남기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압축된다는 옛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와 물, 부모님 등은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요구해서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제공한 존재는 당연히 숨을 쉴 공기와 마실 물과 젖과 길러줄 부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공짜 혜택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공짜라고 합니다. 차표가 없어도 구원열차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모두에게 공짜로 지급된다면 불신자도 태워야겠지요? 분명히 치러야 할 과정이 있습

니다. 이 과정이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대가와 능력을 요한다면 그것은 공짜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겸손한 마음과 구원자를 믿고 인정하는 오직 그것만 보십니다.

구원이 공짜라는 의미는 누구나 태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돈을 들이고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차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2.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복음을 이해하거나 판단해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과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권리도 주지 않고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 하는 상태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몇 가지만 돌아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헤롯왕의 명령 때문에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사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아기들은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자들 중에서 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 중 아직 어린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것들과 그 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신 1:39)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기 힘든 이들은 그냥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법칙을 알고,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욥 3:11). 다윗도 어린 아들이 살아 있을 때는 금식을 했지만 죽은 뒤에는 바로 목욕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나중에 구원받은 자신이 가게 될 낙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삼하 12:23).

어린 자녀나 태중에 아기가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들도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실까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이미 아이를 잃은 사람은 복음이 절망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한을 이중적으로 행사해 비극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원죄’라는 개념 때문에 생깁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고, 부패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담의 유전자,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히 2:14)

살과 피 중에서 살, 즉 육신은 같은 것입니다. 남다른 새로운 조직체를 지니신 것이 아닙니다. 피는 어머니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 오심으로 정결한 피로 나신 것이며 그 때문에 죄 없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유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들도 아무 죄를 안 지으면 이 몸을 가지고도 천국에 갑니다. 피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를 천국에 보내

시는 것도 피가 부패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면제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파이드온’과 ‘파이다리온’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이드온은 예수님이 불러 세운 아주 어린 아이(little children, baby, toddler)이고, 파이다리온(children, 마 11:17)은 좀 더 큰 아이, 즉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 틴에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이드온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파이드온(little children)’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 19:14)

한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아기 때부터 모든 것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는 석가모니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자라셨다는 말씀만 있고, 만 12살 때에 성전에서 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놀랍도록 영특한 아이였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자신을 찾아 헤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눅 2:49)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어린 나이인 그전부터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터득하고 계셨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알았을 것이고, 49절의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즈음에 메시아로서의 자기 임무를 깨달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2세에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와 함께 이제 자신의 판단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나이가 되어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어린 나이에도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지만 면책의 특권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대략 그 정도 나이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죄가 나쁜 것도 알 수 있고, 자신이 악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점이 반드시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3. 구원의 과정과 순서에 대한 오해

이처럼 구원은 어린아이와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완전 공짜, 분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믿음만이 요구되는 조건부 공짜입니다. 이제 차표가 필요 없다는 개념을 아시겠지요? 초대에 응할 분명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기차역까지는 본인이 나와야 하지만 탑승은 무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봉사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나를 잘 섬겨야 네가 내 자식임을 인정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오직 자식이 자기를 아빠나 엄마로 인정해주고 따르며 기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버이날에 개발새발 만든 종이 카네이션이 부모에게는 크게 값나가는 물건

도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월급으로 사온 빨간 내복,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꽃을 만든 정성을 기뻐하고, 열심히 일한 돈으로 부모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찮은 종이꽃과 보잘것없는 선물을 내밀면서 이제 이 대가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고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회갑연이나 결혼식 뷔페에 가면 식권을 주거나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그것은 축의금을 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나는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잔치의 주인공과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안 내도 주최 측에서는 식권을 줍니다. 그러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의금을 내는 것이 도리이자 바른 순서지요. 하물며 회갑의 주인공이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감사해서 내가 삶과 헌물과 봉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하면 조금 후련합니까? 크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이면 몰라도 그것으로 구원의 값을 조금이나마 치렀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나 헌신은 그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동과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땅히 할 일일 뿐이고요.

그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에 일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염치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것을 드려도 염치없긴 마찬가지니까요. 사람의 모든 의는 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가 가려진 자들이지만 우리의 속성은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사 64:6)

구원열차는 공짜라는데도 굳이 차장에게 다 해진 양말짝을 벗어서 내놓고 여비에 보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믿고서 공짜로 받기만 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겹치레를 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이 명료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역무원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 23:15)

유명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큰 교회를 이끄는 사람에게 배울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똑같고,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덧입히고 자꾸 단서를 달아 포장하면서 움짱달짝 못하게 만드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을 더 추종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쉽고 간단하며 구원은 공짜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마음은 있지만 선뜻 교회로 향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지금은 못 나가” 이렇게 핑계를 대곤 하는데요, 무언가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역으로 향하십시오. 그 발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속히 열차에 올라타십시오. 선행과 봉사는 그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



주님 차장 되시니

6부 |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1. 구원열차의 밖에 있는 자들

구원열차에 타고 한숨 돌린 후 들뜬 마음으로 짧고도 긴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차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무기력하게 꾸벅꾸벅 졸거나 한참씩 잠이 들기도 합니다. 승객들 중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서 싸움도 나고, 한 사람이 다른 칸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어느새 처음에 탈 때의 기쁨과 감격은 어디 가고, 제대로 잘 탄 건지 의아해하며 자꾸 노선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떠나 온 곳이 생각도 나고, 화려한 차창 밖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역에서 출발할 때 바닥에 어지럽게 놓인 레일을 보셨나요? 어지러워 보이고 과연 어느 레일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정확한 열차를 타면 하나의 레일이 끝까지 열차에 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많은 레일들이 놓

인 이유는 각기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타든지 한 곳을 향한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열차에 탑승했다면 차장님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친절하고 능력 많은 차장님은 늘 승객들과 함께 있습니다. 승객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그분은 엔진을 잘 돌보고 기관사님에게 우리의 불편사항을 잘 전달해줍니다. 그런데도 승객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가끔 내가 제대로 탄 건가 하면서 차장을 의심하기도 하고 멍하니 창밖을 볼 때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성제를 먹은 공산주의자처럼 세뇌가 되어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늘 맑은 정신으로 구원을 점검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열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열차를 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운송 수단을 이끄는 자들은 기차에 타려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길은 하나가 아니라며 여객선과 자동차와 비행기를 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참된 종착지가 어딘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교통수단의 운전사와 선장, 조종사는 어둠에서 온 자들인데,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네가 영원히 거할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미 구원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그 열차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요되어 주변 사람들과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잘못된 메시지와 통화 내용으로 엉뚱한 것을 배우며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을 배운다 해도 그들은 이미 구원열차를 탔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하게 조바심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도달하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열차에 타지도 않고 밖에서 오토바이로 뱅뱅대고 쫓아오면



서 승객들을 심란하게 합니다. 이 자들은 자기네만 도착지에 간다고 기업을 토하지만, 오토바이 성능이 모자라 절대로 못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토바이 기어는 항

상 2단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결국 엔진이 터져 구원열차를 쫓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아전인수식으로 창작한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모두 돈입니다. 돈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보면 이단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존의 집단에 속해 있어도 돈을 따르고 숭배하면 그들은 구원열차에 탄 사람들과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사용한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악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엉경귀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15~21)

창밖에서 손짓하는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열차는 안전하지만, 그 안에서 평안히 쉬고 누리며 기뻐할 시간도 부족한데, 창밖의 엉뚱한 오토바이와 온갖 잡다한 교통수단을 보면서 어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멀리 보이는 우리의 목적지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열차에 탄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십시오. 또 열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직 열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전화를 걸어 다음 역에서는 꼭 타라고 강권하고, 기도하십시오.

창밖으로 전도지를 뿌리십시오. 그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기쁜 소식을 온 세상으로 날려 보내십시오. 전도지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세상으로 날려 보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옥상에 선 젊은 영혼의 발밑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발을 들인 적이 있지만 끝내 기차를 타려 역으로 향하지 못한 치친 영혼의 품으로, 사회의 부품이 된 가장과 가족에게 외면당해 홀로 우는 노인에게도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며 번민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금보다 귀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될 것입니다.

2. 다른 운송수단의 차장들

열차 말고도 다른 운송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을 날거나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 차도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융통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스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길을 벗어나지만 앞으면 되고, 하늘 길도 얼마든지 벗어났다가 돌아와도 됩니다. 물길도 그렇지요. 오직 열차만이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립니다.

이 레일은 몇 센치만 벗어나도 기차가 탈선하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만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로를 늘 잘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은 선로가 넓어지거나 좁아져도 보수를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러나 열차는 다른 운송 수단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선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관건입니다.

다른 운송 수단은 다른 종교들입니다. 경전도 다르고 믿는 대상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길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종교’를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화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과 절차와 통과 의례와 의전이 그럴듯할수록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나 형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뿐입니다. 그조차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침례는 주님 안에서 과거의 내가 죽어 장사되고 다시 새 창조물이 되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 자체로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간소하게 질서와 품위로 행하면 됩니다.

타 종교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려면 너무 많은 지면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들의 공통점을 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군요. 모든 종교에 크고 작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결국 같으며, 같은 것을 지향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종교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결국 모두 맞닿아 있습니다.

1) 자기애(自己愛)

대부분의 종교와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서 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의 첫째 행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루시퍼의 타락 과정이기도 합니다(사 14:12).

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동안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높이고 남보다 더 아끼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말세의 악한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딤후 3:1~2 일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
의 질문에 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
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 22:37~40)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명령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
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막 8:34)

기독교의 진리에는 역설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
아지고, 옛사람이 죽으면 생명을 얻게 되며, 움켜쥐지 않고 나눌수록 풍성해지
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이웃을 인정할 때 자기가 바로 서는 진리를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닌 남을 살리는 자
가 영웅이며 겸손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고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내 몸부터 사랑하며 아끼라고 외치는 많은 상

품 광고부터 듣기 좋은 명언들이 심리학과 여러 종교들과 가짜 기독교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 고행과 억압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리 카톨릭이 시킨대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해도 죄가 용서받는 것 같지 않고, 과연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분연히 일어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만들게 됩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합 2:4)

사람은 곧바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자들은 네 안에 있는 열정,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고 가르치지만 사람의 안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의 어떤 일부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 마르틴 루터에게 영감을 준 ‘칭의’의 교리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혀야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먹는 것을 무조건 자제시키고, 몸에 무언가 새기고 찔기도 하며, 불에 지지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행진 등을 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모습을 숨기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가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으로 섬기며 온갖 이방종교의 행태들을 섞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절제와 복종을 말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절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영적인 절제를 하는 것이지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말씀이 고행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지만 이것은 번역의 차이입니다. 원래는 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 9:27)

그래서 불신자가 편집장이며 동성애자들이 편집인에 포함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몸을 ‘치다’라는 표현처럼 ‘비트beat’를 쓰고, 많은 이들이 사용해오던 공인본문 계열의 킹제임스 성경은 ‘킵 언더keep under’를 씁니다. 이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절제하는 것이지 바늘로 허벅지를 찌러 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은둔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무 취미나 즐거움도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괴로움을 통해 무언가 이룬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행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이방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의 대언자들은 바알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자 제단 위에서 꺽충꺽충 뛰기도 하고, 급기야 자해를 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왕상 18:28)

십자가 고통이 고행 아니냐고요? 십자가는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

가 고난을 아픔과 고통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신’ 일인데도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천주교인이 만든 가학적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문과 고통이 성경과 다르게 과장되게 그려지고, 과도한 슬픔과 고행이 복음보다 부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필요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책의 후반부에 다시 설명합니다.

3) 물질숭배

무속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목표는 돈입니다. 잘못된 기독교도 물론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번영과 축복을 지향하지요. 이방 종교에서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만드는 이유도 모두 돈 때문입니다. 점을 치는 이들이나 굿을 해주는 사람들,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 모두 돈을 안 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돈이 안 생겨도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는 찾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보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눅 12:34)

요즘 사람들의 보물은 단연 돈입니다. 현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의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산주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지만 사유재산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것은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지제와 하나님의 사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3:5)

물론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교회를 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재정의 규모로 교회의 서열을 정하고 세상에 자기 교회의 이름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교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 돈에 집착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돈은 선하게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이나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과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대해 범죄하고 문제가 생기는 집단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의 신 mammon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4) 신인주의神人主義

모든 이방 종교의 목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주장은 대개 비슷한데, 결국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다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즉 구별된 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원론二元論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종교나 불교, 등은 이런 개념이 아닌 일원론一元論을 지향합니다. 인간이나 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것이며 인간도 수행이나 진보를 통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뉴에이지 종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생을 통해 존재의 완성도를 높인다든지, 명상과 의식변화, 주

문, 접신행위 등을 통해 차원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마귀의 속삭임이며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와 섞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같은 단체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주장하며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실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주장과 매우 흡사한 개념입니다. 그 모두가 환영에 불과하며 각자의 주관적인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천한 것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를 본받으면 질병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들도 인간의 정신이나 신, 그리스도 등이 모두 하나라는 일원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사 55:8)

먼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며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5) 무無

이것은 인간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 실상은 없는 것이라는 개념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종교와 비슷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들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그노시즘, Gnosticism)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 등이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증인이 있었으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일반 역사와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이고 영적인 것이거나 상징이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 개념은 무의미의 철학과도 통합니다. 도덕과 양심을 비롯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무시하고픈 악한 마음이 무의미의 철학입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절대자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동물의 일종으로서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남들의 기분이나 생각 따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본능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방 종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제대로 차려 분별하기를 싫어합니다. 요가, 은사집회, 마인드 컨트롤, 최면술, 점신행위, 고성인 록음악 등을 통해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입하고 부정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영혼 멸절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는 불가지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한 뿌리이며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중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시 14:1)

자신을 잊도록 무언가 계속 반복시키고 손에서 염주를 굴리며 어떤 말들을 수백 번씩 반복시키는 이방 종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 깊이 생각해 정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학 1:7)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 3:1)

6) 진화론(과학만능)

절대자의 창조를 거부하는 모든 종교는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무언가 저절로 우연히 생성되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황당한 이야기에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원숭이에서 가지를 쳐서 나왔다고 믿는 이들은 인간이 더욱 진화하고 발달해 신의 경지에 이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을 원숭이와 신의 중간적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과거에 진화론과 논쟁했던 때도 있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진화론을 반기며 종교와 과학이 서로 반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입장은 교황령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진화설을 신빙성 있는 과학으로 믿으며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일반 무신론자들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뿌리인 창세기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며 그런 종교들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 1:1)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들에는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그깟 하찮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과학을 종교처럼 숭배하기도 합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 등이 깊이 빠져 있는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종교는 과학 만능주의의 어리석음을 보여 줍니다. 과학기술만 발전하면 마치 영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종교의 창시자인 론 허바드는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였는데, 인간의 악한 심성을 기독교의 성령에 해당하는 '테탄 Thetan(사탄Satan과 비슷함)'이라는 정신과 생명의 에너지를 이용해 제거함으로써 몸의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기본 교리로 삼아, 로스앤젤레스에 본부

를 둔 사이언톨로지를 만들었고 지금은 800만 이상의 신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생각을 신봉하는 그들은 모두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을 매매하는 자들입니다(계 18:13).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들고, 죽고,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7) 우상숭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마귀 숭배자와 반역자들의 뿌리가 바벨탑을 지은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므롯이 죽은 후에 그의 환생이라고 주장한 담무스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왕비이자 음녀였고, 신성모독하며 마귀를 섬기는 여제사장으로 모든 여신의 조상입니다. 그녀와 아들이 함께 숭배되었으며 이것은 어미와 새끼 숭배 신앙의 원형으로 로마 카톨릭은 AD 313년에 대대적인 종교통합(밀라노 칙령)을 이루어 이방종교와 기독교를 섞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어미와 새끼 우상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거의 모든 문화에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아세라, 아스다롯, 아스타르테, 이쉬타르, 아르테미스(아테네), 시벨레, 비너스, 다이아나, 이시스(아이시스) 등이 그것입니다. 니므롯은 바알, 바알세불, 바알세불, 제우스, 주피터, 오시리스 등으로 태양신이며, 원조 어미와 새끼인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집트명인 이시스와 호루스로 유명합니다. 담무스는 니므롯의 부활체이므로 이 음녀의 품에 안긴 아기는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극도로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귀 숭배는 끈질기게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모든 문화와 종교에 녹아들어 악한 일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여신 숭배사상, 태양신 숭배사상을 조심해야 하며, 이집트 피라미드의 눈, ‘모든 것을 보는 눈(all seeing eye, 전시안全視眼)’은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므로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눈은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세계를 통합해 지배하려는 자들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이처럼 타 종교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계인 사상도 그렇고 온갖 해괴한 종교들도 그 지향점은 모두 스스로 살아남자는 것이며, 특정한 형태의 신, 특히 자기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들은 대개 신비주의적이고 돈을 중시하며, 사람을 세워시키고 겁을 주어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도 결국 그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외형적 예외는 유일신교 이슬람인데, 이들의 신 ‘알라’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닌 삼위일체의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시는 원리이며, 그들이 이스마엘의 혈통적 후손이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메시아 언약은 이삭으로 오는 것이지 이스마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창 17:21).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존재이니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어느 누구도 알라의 별을 막지 못하리니(꾸란 5장 17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마호메트)는 예수보다 더 높은 예언자로 취급됩니다. 그는 글을 몰랐지만 여행 중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이슬람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여성을 억압하는 위선의 종교이며 폭력으로 세계인을 위협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증오했서 도처에서 처참한 대량살인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살폭탄 테러에 지원하는 청년에게는 천국에서 남자 100명분의 정력과 70여 명의 미인이 제공된다고 속입니다. 이런 영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가는 지옥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사악한 종교는 사람이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담아 통치와 지배를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탈환해 영구히 신의 대리자로 군림하려던 로마 카톨릭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이며 아랍인들은 악마적 계략의 어리석은 희생자들입니다.

한편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더라도 유대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무리입니다. 기독교도 유대교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믿기 시작한 것이므로 타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속언약 중 구약만을 믿는 반쪽짜리 백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7년 환난기가 되면 크리스천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이후에 땅에서 극심한 환난을 견디고 피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모두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구원열차가 아닌 다른 운송 수단을 이끄는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 형태로 극과 극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가 쌓은 업과 내재된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들의 말을 듣는 극소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극단적 사이비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자기네 종파나 특정 교리를 준수하는 무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단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좁은 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쉽고 단순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믿을 때에는 정확한 방법과 신앙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애매모호한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열차의 기관사이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평생 열차에 탑승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열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한 자들까지 목

적지에 데려다주는 원칙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부만 정해서 태우는 것은 타지 못한 이들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타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것은 일부러 탄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매우 합리적인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악한 개념은 세상을 통합하려는 프리메이슨 종교와 기타 모든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의 배교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무엇을 타든지 목적지는 결국 같다는 개념입니다. 등잔불은 하나지만 빛이 여러 각도로 새어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기독교로 입문하고, 너는 그쪽에서 불교로 입문하라는 식입니다. 비밀 종교인 프리메이슨은 심지어 유명 목사도 가입을 시킵니다. 이런 조직에 합류하는 목사들의 생각은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그보다 더 높은 절대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어거스틴도 기독교가 바로 그런 과정에서 로마 시대에 드러난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는 빈민들의 병을 치료하지만 개종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좋은 힌두교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뜻하는 것이며,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실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더 높은 모든 것의 주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 44:6)

그러나 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신 4:39)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 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렘 10:2~6)

4.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개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믿으면 뭐하겠습니까?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으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 있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로 큰 나무로 성장하며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은 큰 여객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니다. 호화 여객선 크루즈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명차로 불리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내달리기도 합니다. 자동차 뺄치는 가격을 자랑하는 명품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모두 이 소박한 기관차가 이끄는 구원열차를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운송수단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고, 세상 모두가 알아주는 굉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밖의 대단한 광경들을 우리는 오래된 열차의 덜컹대는 객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바라고 꿈꾸던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그들을 더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오직 이 구원열차만이 제대로 종착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중간에 겨우 이 열차로 갈아탄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집을 부리다 사고로 실패하거나 그들의 조종사와 기사와 항해사를 따라 한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 곳과 우리를 이끈 자들의 목적지는 달랐구나!!”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여정은 끝나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여객기와 여객선과 버스와 모든 운송 수단의 주인들은 알고 보니 더 큰 주인의 용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봉사한 자들도 있고, 모르고 속은 자들도 있지만 이제 와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큰 주인 마귀를 따라 모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차장 되시는 주님을 따른 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 열차를 선택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탄 사람들이여,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습시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은 아직 닥치지 않았습시다. 아직도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 구원열차에 오르십시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후 6:2) ♪



나는 염려 없어요

7부 | 복음은 평안이다

1.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무작정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으면 될까요? 지금 타고 있는 것이 정말 구원열차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타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으면 몸에 진동만이 느껴지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을 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때로 의심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느낌이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열차를 타고 있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 그게 현실이 될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선 눈을 감은 것처럼 스스로에게 간혀 있지 말고 눈을 뜨십시오. 제대로 보고 다 알아보고 판단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다른 것을 타고 있다면 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제대로 구원열차에 탔는데도 긴가민가하다면 반드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호적등본을 떼어봐야만 부모님이 친부모인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랜 세월 키워온 여러분의 자녀가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당신을 친부모로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참 신을 판단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나를 거둬나게 한 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그냥 당연히 부모로 여깁니다.

제 연년생 누나는 누가 봐도 혈액형이 전형적인 O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검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20년을 살다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제대로 검사해 보니 저와 아버지와 같은 A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몇 천 명씩 검사한 그 결과가 틀렸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O형이었으니 망정이지, 누나가 엉뚱한 B형 같은 것으로 나왔다면 혼자 오랫동안 출생의 비밀을 두고 고민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성격이나 생김새나 의심할 것 없는 우리 가족이었지요. 혈액형이 이상하게 나와도 진짜 자녀는 부모를 먼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검사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귀의 방해와 무신론자들의 반박,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의 비성경적 학설에 의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실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의심하고 살펴보며 하나님을 옹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마음의 순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여 주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잘못된 일이 있어도 누가 과도하게 욕하고 비난하면 먼저 가족 편을 들고 싸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하

나눔은 빈틈이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을 점검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같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들의 엉뚱한 고백이나 새로운 주장입니다. 앞서 소개한 칭의의 교리를 다시 쓴다든지 하는 일인데,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 집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공공연히 자기가 천국에 갈지는 죽어봐 야 안다고 했던 말 같은 것에 겸손한 분이라며, 그런 자세가 마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양 잘못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죽음에 전 국민 이 요동하고 크리스천들까지 기웃거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도 못 받고 무작정 확신을 가지는 것도 문제지 만 구원의 속성도 모르고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다 죽은 뒤에 일생을 종합해 심 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순간이 라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에 정말 흡족한 인간이었던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정당한 심사를 통해 천 국이든 지옥이든 결정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 도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은 인간의 마음이 매우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렘 17:9)

이런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의인 이 되는 길뿐입니다. 그러면 일단 칭의를 얻은 것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유보되 었다가 죽은 뒤에 그대로 두든지 취소하든지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혼은

그냥 지속적인 것이며, 죽음이란 육신과 혼의 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은 혼의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는 이 육신과 사악한 마음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00% 지옥입니다.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값진 희생과 영원히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로 선행과 선교와 봉사와 헌금을 바라실까요? 오직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에 주시는 분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 11:6)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크나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믿으십시오. 믿음이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물론 잘못된 믿음이나 비진리와 엉뚱한 신을 믿어도 그것은 잘못되고 엉뚱한 실체와 증거를 가져다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바른 믿음의 대상을 알아보고 확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전 15:2)

정말로 믿으십니까? 헛되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으리라’가 아니고 ‘받았느니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2.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홀로 기록하시고 때로 무서우며 공의가 엄격하신 분이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한없이 넓고도 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다 공짜로 오라고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계 22:17)

이 말씀 다음에는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무리가 바로 구원은 공짜라는 것과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여기 ‘값없이’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 것을 내고 사라고 하셨겠지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데, 이렇게 써놓으시고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요 14:1)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단순히 일상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많이 사 용하지만, 무엇에 대한 근심입니까? 이어지는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3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함을 보여 줍니다. 있으니까 믿으라 하지, 없는 것을 믿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확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 곳을 마련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십계명 준수에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신정정치 하에서도 십계명을 어긴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그것을 어긴 자가 죽을 수는 있어도 그가 메시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다면 그의 혼까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십계명 이전의 사람이지만 ‘행위’의 기준에서 보면 천국에 못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롬 4:1~3)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대가를 바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4~5절)

대가로 받는 품삯이 ‘빚’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義’가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또한 위치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홍과 같은 죄를 가려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8절)

정말 놀랍고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원리를 악용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일에 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희소식입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 구원의 교리가 사실이면 절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천국도 못 갈 걸 왜 믿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육신은 완전하지 못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려 해도 극도로 사악한 인간의 마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조차 나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던 욕심과 미움과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감히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3. 구원의 영속성

믿음에 행위를 더해서 얻는 구원, 구원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것, 구원의 취소나 번복을 말하는 것은 모두 이단 교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는 배교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무신론으로 돌아서서 기독교를

욕하거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만이 배교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할 만한 일입니다. 진짜 배교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배교의 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 진리를 믿는 자들이 바보가 되는 현상이 교계에 더욱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들을 뺀 명목상의 교회가 진리에서 돌아서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한 번 믿었던 사람이 중간에 더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는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믿었는데 삶이 부족하면, 안타깝지만 그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잘못된 판단으로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조차도 육신의 죽음이 징계로 주어지지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중에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 1:19~20)

사탄에게 넘겨져 육신이 죽게 됐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것을 배워서 이후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계속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뭘 배워서 무엇에 써먹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간 자들에게는 회개가 없고, 여전히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붙잡으면 그 행위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리는 현대인들의 죄악과 타락이 위험수위

를 넘어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붙들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이미 성도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좌절할 수 있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not to be repented)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후 7:10)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no regret, NIV)’이라고 바꿔놓았지만, 구원에 무슨 후회란 말입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속성 자체가 되돌려지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걱정되면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고민이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며, 그 특성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참된 교리에서 돌아서 배교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소망의 소식이기도 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위 구원은 하나님께만 배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평생 움아매는 대재앙입니다.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를 바꾸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히 6:1~2).

믿음과 복음의 기초는 자유이며 평안입니다. 이런 바른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전하고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3:3)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

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요 10:28~29)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작은 자들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물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비논리를 절대 말씀하지 않으며 우리의 생명이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엡 1:13)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엡 4:30)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고 후 1:22)

이처럼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심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입니다.

4. 영원한 선물은 영원하다

현대적 창조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헨리 모리스H. Morris는 성경에 세상 모든 궁금중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일깨워 준 사람인데, 그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 질문한 독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선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선물에 영원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끊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는, 당연한 말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淸소)되지 않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다음 중 언제,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뒤로 영원히 이어질 테니까요.

- ① 일생을 다 살고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 ② 구원 후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룬 어느 시점부터.
- ③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 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일단 답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뿐입니다. 그 답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은 작동되며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최소한 헨리 모리스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인정한다면 말이지요. 우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 6:23)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롬 5:15~16)

이런 값 없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며 ‘칭의稱義’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①, ②, ③번 중 언제 받게 될까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벧전 1:8~9)

구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적당한 믿음이나 교회 출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이며, 순수한 믿음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와 조건을 이루어 하나님께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내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행위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계가 불투명하며, 성경에 그 행위의 적정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죄인들도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면 거의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가 다시 죄를 짓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과는 달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려진 죄는 단번 속죄의 법칙에 따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이 짓는 죄는 회개할 일이며 개인적 손해와 징계가 따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유효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0~11)

정리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모순임

을 알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시점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이므로 그 시점은 ①, ②번의 시점이 아닌 ③번, 즉 믿고 칭의를 얻음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펔전 C. Spurgeon 목사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명설교가였으며, 수천 편의 설교를 한 번도 재탕하지 않고 해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을 목숨처럼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펔전도 구원은 영원한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 15:10)

스펙전은 이 말씀을 들어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믿는 즉시 이루어지고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 왜 있겠는가? 구원이 죽는 순간 결정된다면 그때 가서 천사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역시 구원받는 시점만 알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 당하지도 않고 다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죄인의 회개는 그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믿을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뻐하실 수 있지만, 천사는 시간을 뛰어넘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미래에, 즉 각 사람의 죽음 후를 미리 알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이 그 즉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끝났음을 안 바로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음은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팔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 즉 둘째 사망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혼은 죽음을 나중에 결정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혼의 생명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마귀의 형벌 장소인 지옥에서의 영원이 예약됩니다.

죽음이 이렇게 아무 조치 없이는 반복되지 않고 영속성을 지니듯이 삶도 그 물줄기가 바뀌면 똑같이 영속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혼을 구원의 언저리에만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까지 평안히 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말씀으로 보장해주신 것처럼 부디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믿으며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장 되시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노래 부를 때만 “나는 염려 없어요~.”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며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아무 근심도 염려도 없이 해탈한 듯 고통을 느끼지 않는 황홀경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희와 마귀의 미혹, 옛사람의 죄 때문에 성도는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해야 회개를 하고, 근심을 해야 점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맨 밑바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잠시 동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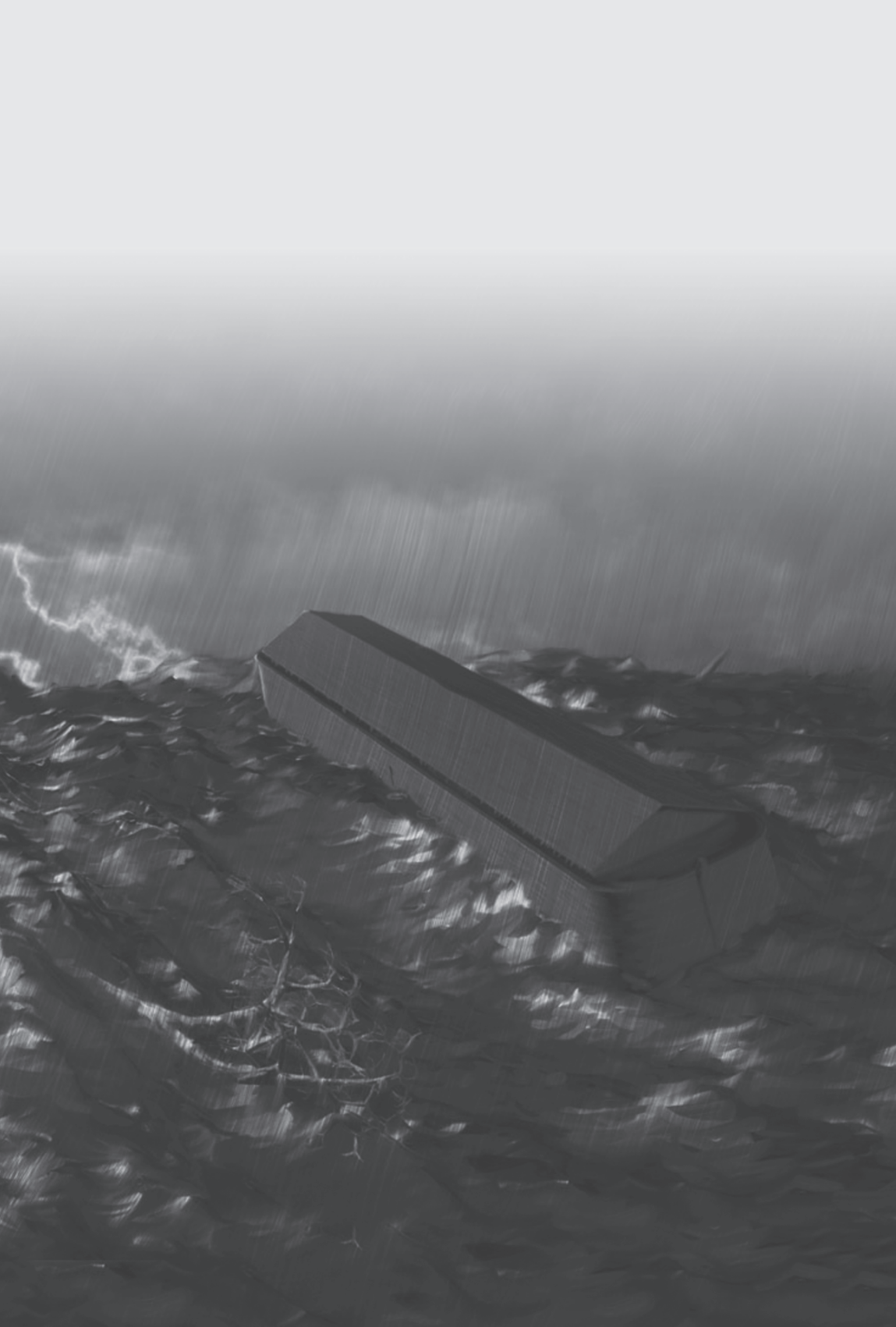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늘 웃으며 무엇에 취한 듯 희희낙락하라는 것이 아

납니다. 지금은 답답해도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탄 이 기차가 구원열차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 놓지 못하리라. (롬 8:38~39)

이 기차에 올라탄 모든 사람은 불안하든 발을 동동 구르든 느긋하든 때가 되면 똑같이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멀미가 날 수도 있고 초조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종종 함께 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진상 승객도 승객입니다. 하지만 열차가 불편하다고 보챌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 조바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할 시간에 틈틈이 더 많은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야 합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을 돕고 차장을 도우며 많은 이들을 기차로 인도한 사람은 도착해서 남다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



PART

2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방주의 탑승 과정과 목적지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방주는 뒤집히지 않는다

벋샷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방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벧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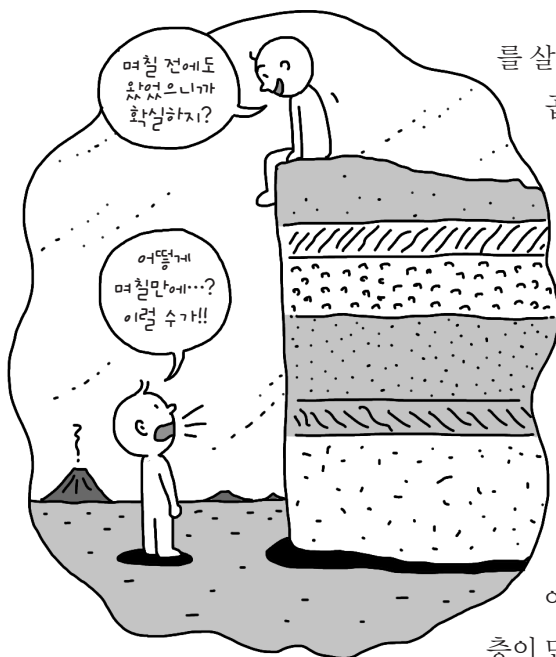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1부 | 방주의 탑승 과정과 목적지

1. 방주는 역사이며 구원의 예표

이제 노아의 방주로 가 볼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땅 전체를 물로 뒤덮은 대격변의 증거는 지구 도처에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십 가지의 홍수 설화가 남아 있고, 이 사건을 기록한 석판화 등도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의 역사를 잘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주 자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배의 파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변화되어 형성됐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격변론’을 반대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균일설’인데, 현재의 변화



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양을 과거로
곱해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입니
다. 그러나 과거는 아무도 본
자가 없으며 늘 오늘날과 똑
같은 환경과 기후와 조건이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
당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1980년에 미국의 세인트 헬
렌 화산이 터졌을 때 사람들
은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
니다. 겨우 몇 시간 만에 협곡
이 형성되고, 며칠만에 다층 지
층이 만들어졌으며, 몇 개월 후에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단 몇 시간 동안 석탄
의 첫 과정인 토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구의 지질학적 흔적들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사람들의 타락상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
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
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창 6:5~7)

노아의 홍수는 방주에 탄 것들만을 제외하고는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킨 대사건입니다(창 7:22). 방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탑승자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은 그들이 방주 안에서 불안해하던 말든 모두 살아서 새 땅을 밟았습니다. 이미 탑승한 이상 그들은 방주를 뒤집지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탑승자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모두를 죽이신 사건이지만 방주는 분명히 구원의 예표입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그들 모두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비롯해 많은 구원의 원리를 예표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눅 17:26~29)

하나님께서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방주에 탈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이 노랫말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나의 자유의지는 방주를 통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2. 방주에 탈 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었나

구원방주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일 밤낮으로 내린 비를 포함해 총 1년간의 표류 끝에 아라랏 산에 도착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창 8:4)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방주를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정말로 그 많은 이들이 다 타겠다고 했다면 어찌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신 것 아니냐고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예지 예정, 즉 누가 방주에 탈지 미리 아신 것일 뿐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조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은 그 사악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고 모두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6~7)

그때까지는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쏟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미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해 거룩한 씨, 여자의 씨(창 3:15)로 오실 순수한 피의 메시아가 올 길을 차단하기 위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당시 세상의 부패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아내를 하나씩만 둔 자들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창 6:8~9)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실수가 없고 흠 없이 완벽한 자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방주 사건이 끝난 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음으로 그의 아들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 11:7)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인간적인 부족함을 지녔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며 실수한 기록들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널리 선포된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미리 아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주가 하나로 족했듯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곳의 면적을 대략 알 수 있고, 그런 계

산을 통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 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 21:1~2)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계 21:16~17)

이 수치는 약 2,240km의 정사각형으로 된 도시인데, 윗면과 아래 면이 모두 네모반듯하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피라미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65m의 아름다움을 위한 담장이 둘러쳐 있는데, 이는 63빌딩 높이의 도시에 2cm의 담이 세워진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파분한 수도원 생활 같은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물론, 죄악이 개입되지 않은 참된 의미의 쾌락이 있는 놀랍고도 즐거운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쯤 되니까 이 도시의 한 면은 그 다섯 배 정도가 됩니다. 꽤 크긴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보다는 작은 크기일 겁니다. 물론 천국 백성들의 거처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온 우주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 크기의 면적에 몇 층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도시의 거주민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쾌적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지는 않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남아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거의 변질되어 참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노아의 방주에 탈 정도의 의인이 아니어도 모두 태워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문이 닫히려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012》라는 영화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도 인간들은 좋은 유전자를 지닌 자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자들을 선별해 탑승시킵니다. 이런 구조선이 있다면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구조선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경고와 인류의 중대한 사건들을 돌아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 8:12)

이제 이 세상은 역사의 대단원을 향해 치달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있는 바로 지금이 구조선에 오를 때입니다. 더는 미루고, 주저하고,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요 12:36) 🎵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2부 | 방주는 뒤집히지 않는다

1. 노아의 방주와 복원력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대참사... 큰 여객선이 힘없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애타는 심정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는 이 사건이 속히 해결되고 억울한 유가족이 없도록 사건의 배후와 잘못된 관행, 비리 등이 낱알이 세상에 드러나 정의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을 급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천하보다 귀한 수백 명의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웬만한 사람들은 배에 대한 많은 상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중 ‘복원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지만 선박의 기능에 관련해 사용되면, 말 그대로 파도나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배가

다시 중심을 잡고 원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왕 배를 만드는데 왜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못 만들었느냐고 생각하지만, 여객선은 무작정 안정성만 고려해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배의 하중을 아래로 쏠리게 하면 복원력이 좋아져 사고에 대비한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승선감이 나빠져 배 안의 승객들은 멀미가 심해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군 작전용 배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하중을 아래쪽에 두어 안정성과 복원력이 월등하지만 승선감은 여객선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다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여객선 설계의 딜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는 윗부분에 객실을 불법 증축하면서 무게중심이 더 위로 쏠리게 되었고, 바닥에 채우는 평형수를 줄임으로써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안정성을 포기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 여객선을 두고 왜 배를 군용 선박처럼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항해 용도가 아니고 그저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모양도 흔한 성경동화의 삽화에 나오듯이 큰 나무배에 집을 지어놓은 형태가 아니라, 장방형의 상자 모양입니다. 식당에 흔히 있는 네모난 수저통 모양으로 생긴 나무상자의 덮개 가운데 부분에만 약간의 지붕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옆면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방주의 복원력을 염려해 우리가 그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많은 동물들의 난파를 걱정한다면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는 격입니다. 방주의 복원력은 여느 선박의 복원력과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모형 실험을 통해서도 방주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방주의 크기는 폭이 약 22m, 길이가 약 135m이며 4~5층 건물 높이의 구조물입니다. 이 방주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물난리로는 절대로 뒤집힐 수 없는 피난처입니다. 어떠한 시험의 물결이

달려들어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 안전한 배였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탑승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방주를 전복시키려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으로도 이런 비율의 네모 상자는 거의 사선으로 기울었다가도 되돌아갈 정도로 놀라운 역학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원력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고대 사람들은 원시인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은 이런 수학적 크기를 명령하셨는데, 사람에게서는 1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엄청나게 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토목기술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발견된 방주의 조각은 성경 기록대로 고렐나무로 되어 있는데, 광물화된 역청이 함께 들어있어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든 특징들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너는 고렐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창 6:14)

존 우드모라페 J. Woodmorappe 박사는 <노아의 방주, 그 가능성 연구>라는 책에서 승선한 모든 종의 동물과 식량과 식수 등이 충분히 탑재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는데, 그 탑재물들은 방주의 무게 중심을 아래로 쏠리게 해 그 안정성을 더욱 높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 지구를 휩쓰는 엄청난 파도에 방주 탑승자들은 꽤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물층이 쏟아져 내리면서 화산까지 대거 폭발하는 난리에 밤낮으로 40일을 비가 오고 나머지 320여 일은 물에 표류하며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하기까지 흔들렸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아 방주에 탔는데도 극심한 혼란과 멀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방주에 탑승한 노아와 가족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멸절된다면 홍수의 물에 휩쓸려 죽은 자들이 부러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이 분리될 뿐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

니다. 다만 어디에서 그 영원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달려드는 고난과 시험의 물결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롬 8:18)

그러나 당장은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럽습니다. 쾌속선 등 요동이 심한 배를 타면 그 멀미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서도 외곽 지대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사람은 배의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부분에 자리를 잡고 요동을 최소화했겠지요. 놀이기구 중에 사선으로 기울어져 빙빙 도는 판의 가장자리에 사람들을 태우고, 조종하는 직원이 기울기를 흔들면서 양방향으로 잡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안전요원은 중간에 편안히 서서 여유를 부리고 재주를 넘기도 합니다. 정 가운데는 회전 폭이나 기울기의 정도가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중간 부분은 희생제사의 제단을 놓거나 사람이 생활하고, 다른 공간들은 균형 감각이 사람보다 나은 동물들이 차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 함께 타신 하나님은 모든 탑승자들을 기억하시고 물이 마르기까지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창 8:1)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방주를 짓게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이후부터 자기를 믿을 필요도 없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은 힘들고 홍수는 지루합니다. 이 삶에 미련이 없고, 빨리 맑게 걷힌 새 하늘을 보고 싶고, 새로운 땅을 밟고 싶기만 합니다.

온갖 동물들과 지내는 방주 속 환경은 열악합니다. 악취도 나고 갑갑한 데다, 나 자신도 왜 여기 태워주셨는지 의문이고 늘 실망스러운데, 나와 함께 공짜로 승선한 다른 이들의 인간성은 정말이지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스거리고 매일매일 토할 듯한 멀미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타고 있으며, 주님이 선장이 되시는 방주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서 가장 안전한 배 노아의 방주, 그 놀라운 복원력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2. 방주에서는 아무도 내릴 수 없다

방주에서의 생활은 어려웠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혀 겁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는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물이 보내는 곳으로 갈 뿐 어디로 향하겠다는 탑승자들의 계획이나 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항해일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을 나가는 시점도 그들은 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단 댔으면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예표인 방주의 특성 중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방주에 탄 8명 중 누군가가 살기가 싫고, 방주 안에서의 삶이 답답하고 무료해 미칠 것 같아서 탑승을 후회한다 해도 그는 내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주변 지인 중에 도저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신앙인이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있다 해도 자신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놀라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잠시 흔들린다 해도, 아니 영영 흔들린다 해도 구원이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시험에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엄청난 시험의 물결로 가득한 위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듯 우리가 받는 상속 유업도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히 5:8~9)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2)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9:15)

구원은 일단 접수했다가 통과한 후에 최종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입학했다가 죽을 때 졸업장 따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방주에 타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이후에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는 새 땅에 안착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구원을 결정하고 지키고 반복하고 무르고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아무리 “나는 방주를 못 탄 사람들과 다름 바 없는 인간이야! 나는 지금 홍수와 깊음의 샘에서 터진 물에 빠져 죽고만 싶어!!” 하고 절규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평안의 근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구원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늘 전제는 확실히 구원받은 경우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연약하고, 부정확한 뇌와 간소한 죄악의 육신을 아직 입고 있는 존재가 어찌 모든 것을 완벽히 지키고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도 자살하려 했고, 하나님의 낫을 피했으며, 계획적인 범죄를 하고, 간교한 거짓말을 하거나 불경건한 직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징계를 불러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을 테지만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적 교만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영속성을 끝내 믿지 못하고, 믿었던 자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도 소용없다면서 다음 구절을 제시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히 6:4~6)

그러나 이 구절은 문맥을 잘 보고 ‘만일’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만일’이라는 표현은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능성보다는 가정법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9절)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말이 그렇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들 중 범죄한 자들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이후에 죄를 짓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큰 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혼은 천국(낙원, 예수님 승천 이후로는 셋째 하늘)으로 갔습니다. 구약의 아간, 웃사 등을 비롯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한 자, 디모데전서 1장의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그들

입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반복하는 조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삼하 6장). 과연 그것이 그리 큰 잘못일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 법궤가 떨어지도록 그냥 두었을까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 엄중하고도 귀중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웃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궤에 관한 법에 맞지 않으며 질서가 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웃사는 죽었지만 그의 혼까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그 육신의 목숨을 거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교회의 '성도' 중에는 불신자도 행하지 않을 끔찍한 음행자가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고전 5:1)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다른 부인과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치면 후레자식이요, 개차반이며, 천하의 몫쓸 자일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띄우는 권면과 경고의 편지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성도라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그가 성도이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히 12:8).

사도 바울은 그 음행자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5)

사탄에게 내어주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여 주듯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떨어져 나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이 죄에 따라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구원 반복, 구원 취소의 악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옳아 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해병대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의 이 구호는 ‘신의’를 의미합니다. 그들도 제대 후 모두가 해병대 출신으로서 명예롭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히, 심지어 죽은 뒤에도 해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병대 출신이면 나쁜 사람도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한 번 얻은 해병대원의 신분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의리의 표시입니다.

사람의 조직이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행동의 잘못이나 판단 미스로 인한 실수 등으로 인해 쉽게 마귀와 하나님의 소유로 툭하면 이리저리 이전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의 영속성을 끝내 믿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믿는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역성경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성도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는 걸 왜 얘기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롬 9:3)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말은 ‘끊어진다’는 표현보다 한결 정확한 표현이며 오해를 덜 일으키는 말입니다. 저주받다(accursed)라는 단어를 NIV 성경 등이 잘려지다, 끊어지다(cut off)로 번역하니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고 가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종이 지옥에 간다 해도 다른 많은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그런 일은, 누가 구원을 대신 해줄 수 없고, 오직 개개인은 각자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명백한 진리와의 맞지 않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 하노라 (겔 14:20)

이처럼 누구나 자기 혼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치에 맞지 않는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설령 ~~할지라도’, ‘심지어 ~~할 수도 있다’는 가정법을 통해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잘 파악하여 말씀을 오해하거나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뱃삿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3부 | 방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1. 노아는 선장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직접 승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아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창 6:18)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는 자신의 시점에서 방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만(창 7:7, 13 등) 하나님은 ‘들어오라(come into)’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그들을 조종하거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현대역본 성경들은 ‘들어가라(enter)’로 번역했으나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구원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방주에 타는 권한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지어 생명들이 1년 동안 살아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 삼아 초청하고 또 권면하며 끝없이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본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딤후 4:2)

한편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것도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 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창 7:16)

주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장이 되셔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지키시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신 것은 이제 방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당시 인구를 20~3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 6:3)

2. 방주로 나아온 동물들

방주에는 많은 동물들도 탔습니다.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은 사건이므로(창 7:22) 곤충들은 예외였을 것입니다. 곤충은 코가 없고 골격의 작은 관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 달라붙거나 나무토막 등에 달라붙어 살아남았을 것이며, 알의 형태로 물에 떠다니다가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죽은 사건이었으니 물고기도 멸절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물고기도 코가 아닌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물은 흔탁해졌겠지만 알의 형태로 살아남거나 덜 탁해진 곳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종류별로 태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노아의 가족들이 태우기도 했겠지만, 동물이 다양하게 분화된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해도 모두 포획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방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두 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두 마리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창 6:19~20)

짐승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조성하신 곳이 지구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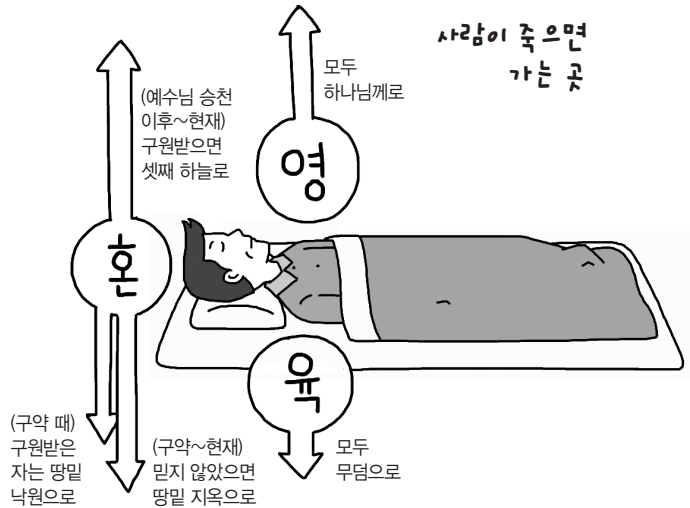
동물들은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희생 제물로 인간을 대신해 죽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까지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육식이 허용되었는데, 물뿐이었던 황량한 땅에 살아남은 노아의 여덟 가족을 위한 새로운 조치였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창 9:2~3)

이때부터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천년왕국이 되면 이전으로 회복되어 사자와 어린

양도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로 영·혼·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은 죽은 뒤에 몸은 흠으로 돌아가고 혼은 천국(낙원)과 지옥으로 가며,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흠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전 12:7)

그런데 짐승들에게도 영이 있습니다(개역성경은 ‘혼’으로 번역하고 ‘원문에는 영암’이라고 표기함).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소나 고양이 등을 ‘영물’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살리고 죽는 개가 있는 것이며 서로 돕는 동물들도 있는 것입니다. 새끼가 죽으면 슬퍼하고, 또 목숨을 던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특성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 3:19)

그런데 사람의 영과는 달리 짐승의 영은 그저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전 3:20~21)

짐승의 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짐승에게 혼이 없는 것인지 짐승의 혼도 땅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생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짐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과 천년왕국까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많은 애완동물들이 있지만 지나친 환경운동에 의한 특별대우는 성경적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에코 파시즘eco fascism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의 많은 환경 운동들이 하나님의 처음 명령, 즉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지배하는(창 1:22) 원리에 반하는 정신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윤리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므로(출 23:19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

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람에게보다 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알고 적당하게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며 이용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3.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염려가 없다

구원의 방주를 탔으면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평안히 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자신이 구원을 정말로 얻은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언젠가 모 교단이 주최한 어린이 신앙 글짓기 대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쓴 수상작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니까 사전에 출석 교회에서 참가할 아이들에게 몇 가지 시청각 교육을 시킨 모양이었는지, 아이들의 글은 전개되는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 로마 병사들의 채찍은 끝에 쇠갈고리가 달려 예수님을 때릴 때 몸을 휘감아 살점을 뜯어내 갈비뼈가 보일 정도였다.
- 예수님의 큰 고통을 알고 무척 놀라 눈물이 났으며 평소 내 모습을 반성했다.
-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여줬거나, 그 영화가 15세 미만 관람 불가니까 거기 나오는 정도의 고난을 말해주며 예수님이 견디신 고통을 설명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글에서 죄의식은 보여도 구원이라든지 속죄 같은 개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글을 자세히 봐도 대동소이하게 고난과 죄책감, 미안함 등이 전부였고,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식의 다짐이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그런 고통을 견디셨다고 쓰고 있지만 왜 그래야 했는지, 그것이 자기들과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쓴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글에서 제 어린 시절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무수하게 들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떤 때는 구원이 개인의 체험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면 ‘나의 죄를 위해서’로 바뀌야 한다고 정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예수님의 고통이 그리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게 나랑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마도 자기네는 아는데 풀어서 전달을 못했거나 어른들도 몰랐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야 조금 더 그 의미를 알게 됐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을 느껴 애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바탕 울어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쪽으로만 강요받았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희미해져 갑니다. 원리는 안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

셨다고 외우라 합니다. 마치 학습세례 받듯이 누구나 답은 아는데 과정과 의미는 모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예” 하기로 되어 있는 학습구원(?)으로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를 죽인 자

청년 때인 80년대 말,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에 도울 일이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동료 청년 교사들이 준비한 최신 수련회 프로그램에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성기도 등으로 한바탕 성령의 도가니(?)로 이끈 후에 한 명씩 불러내 빈 방으로 안내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죽어 있다고 일종의 상황극 같은 것을 합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면 시신을 넣는 관이 하나 벽에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범인이 있으니 열어 보라고 합니다.



혼자 빈방에 들어간 아이는 문짝처럼 생긴 관 뚜껑을 열게 되는데,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 바닥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관을 열고 생각지도 못한 자기 모습을 본 아이들은 대개 숨을 멈추며 소스라치게 놀라고, 방을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직 의식을 치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함구하는 그룹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관에 직접 누워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산다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

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명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설명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가?

왜 나는 슬퍼해야 하고, 눈물이 안 나면 참담한 심정이 되어야 하는가?

아이들은 이런 의문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다.” 이 앞뒤를 자른 말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다면 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범죄자로 느껴야 하고,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은 현행범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는지, 아는 이도 없고 구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 구원을 받고 무언가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출석하던 아이들 중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난 것은 물론, 심혈을 기울여 책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교사 청년 까지도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 매우 흥가분한 무신론자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 복음이라면 평생 기억될 잘 만든 영화 한 편 만도 못한 것 아닐까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무척 격양된 어조로 삶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청중들을 향해 웅변을 합니다. 꽤 그럴듯하긴 한데 들여다 보면 웅변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도 내용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도 복음 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늘 하던 식으로, 당신들은 느끼고, 아파하고, 뉘우쳐서 분명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때 질타 당한 비통한 감정은 그날 오후예배까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서 심장 충격하듯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자고 나면 새벽에 또 교회당에 가서 가슴을 치며 펌프질을 합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

고 망각의 습성을 지녀서 듣고 또 들어야 한다지만, 알맹이를 들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인데 맨날 껍데기만 던지니 껍등만 따잡고 안으로 파고드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자, 그러면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혹한 고통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고통의 이유와 목적입니까? 아무리 슬퍼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는 이들이 좀 더 아프고 슬프라고 주님이 당시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십자가는 로마식 형벌입니다. 죄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몸에 박힌 못을 통해 다 쏟아야 끝나는 사형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희생물로 오셨는데, 그분은 흠 없는 대속의 제물로 바쳐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제물이 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사형 방식은 십자가가 아니었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지만 유다의 ‘홀’이 AD 7년에 떠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일찍 태어나셨어도 피를 다 흘리는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유다의 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뒤에 그것이 떠나야 십자가 방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사이에 태어나기로 예언되신 분입니다.

실로(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하다. (창 49:10)

홀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셔서 홀이 떠난 후에 로마 방식으로 죽으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창세기의 예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부패된 피를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손상된 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 방법은 한 가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죄 없는 깨끗한 피로 드러지는 제사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둘째, 동물의 피로는 영구 제거가 안 되고 친족의 피여야만 합니다.

(네 형제가 노예로 팔리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중의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레 25:48~49)

셋째,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나를 대신해 제물이 되신 주님의 희생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 11:25)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종류로 '친족'입니다. 처녀에게서 나신 그분의 피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피는 어머니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죽게 된 우리의 숨 막히는 답답함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 4:15)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흠없는 피를 아낌없이 흘려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언제까지나 죄를 지고 가면서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새로운 창조물

그러면 2천 년 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

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 3:13)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멋있고 우아하게 죄를 없애신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轉嫁’되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저주 덩어리요, 죄 덩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뚫 뱀을 보면 살았듯이, 죄로 죽게 된 자들은 ‘죄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사는 것입니다(요 3:13~14).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그래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때 우리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육신에 온 것도 엄청났지만 죄를 알지 못한 거룩하신 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저주가 되는 그 고통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종교 영화에 나오는 과도한 채찍질과 고문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고통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포도주가 아님)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요 19:30)

이처럼 예수님이 모두 이루신 일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믿으며,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의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홍과 진홍 같이 붉은 죄를 주님의 피로 가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갈

이 희게 될 것ियो,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 1:18)

우리는 아직 부패한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고후 5:17).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몸에 동참하는 ‘교회’가 됩니다.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롬 8:1)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벧전 2:9)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고전 6:19)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원히 보장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채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 2:20)

죄의식을 넘어서

복음을 더 길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나 초신자에게 성경 구절들과 함께 최소한 이 정도 원리는 알려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물론 더 적은 말씀으로도 순수하게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모호해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줘야 무작정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애통함의 감정이 스스로를 후련하게 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기는 애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의식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죄의식을 계속 상기해야 참 성도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참 의미와 본질을 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일평생 상기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계속 갱신되고 되새김질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치욕의 자리로 보낸 상징물이므로 슬프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눅 15:7)

한국의 한恨이라는 정서에 세워진 국내의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 <영문 밖의 길>, <주님 고대> 등으로 대변되는 슬픔의 신앙이 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 마음은 귀한 것이었지만 슬픔에서만 끝나는 것은 문제이고,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인지 자기 처지와 한스러움 때문에 우는 것인지 모르는 분위기 때문에 복음은 열어지며, 글짓기를 했던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죄의식과 아픔만 강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복음을 ‘아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므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깊은 의미를 알게 하고 각자의 의지로 “예”라고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점점 실종되고, 마치 세상 기업의 프로그램 같은 교육과 각종 훈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각자 어떤 말씀으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이웃들 모두에게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확고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는 옛날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도 아닌, 가장 필요충분한 죄사함의 조건이며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복음은 억지로 지는 고행의 상징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되어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선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인생 항해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안전하게 이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





구원열차와 구원방주, 이제 확실히 올라타셨습니까?

자, 이제 저와 함께 떠나본 가상의 모든 여행을 마쳤습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우리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도 달려가고, 또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높은 산악지대와 위태로운 다리가 펼쳐질 것이고, 검은 푸른 파도와 성난 물결이 다가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바심도 날 것입니다. 토할 것처럼 메스거리고 당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고 열차의 기관사와 엔진과 차장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열차를 포기하지 않으며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또한 방주로 들어오라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실 선장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고에도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두고 떠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얻읍시다.

세상 사람들은 엄습하는 불안에 참된 근본주의 기독교를 조롱하고 욕하며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힐링’, 그들이 얻고자 하는 ‘웰빙’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요 14:25~28)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열차는 오늘도 많은 역을 지나며 어지러운 도시를 가로질러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방주는 빗속을 뚫고 거친 물살도 넘어 섭니다. 칸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속히 성경과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자료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관한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롬 11:29).

자, 이제 그리운 우리의 본향, 최종 목적지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그 빛나는 도시에서 함께 만나볼 그날을 기대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샬롬~!! 🎵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험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험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뛩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

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위엄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이사야서 59장 1~2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설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는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 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 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 하였도다,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영존하는 삶의 종착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십시오!

▶▶ 성경지킴이 www.KeepBible.com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빠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로이드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운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짧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체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감수,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티
11.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2.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4.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7.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8.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재림과 휴가: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1. 침례교회 바로 알기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2. 칼빈주의 바로 알기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King James Bible 1611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2011
400주년
기념판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스필전·무디·로이드 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갈보리 등의 단어들이 살아 있으며 천국·지옥·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자킴이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클라렌스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론)에 관한 이해를 돕는 책이 합본돼 있습니다.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 주는 책. 각기 조금씩 다른 내용이지만 세 권 중 한 권만 보셔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김, 버트 외

김제임스 성경의 역사/ 김제임스 성경 답변서/ 김제임스 성경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정, 번역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등을 짚어 줍니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김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힙니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로, 김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이들의 생생한 체험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외

알 레이시, 엠알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알 레이시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풀립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동시에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날개 달린 천사, 아기 천사, 여자 천사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이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사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참된 길을 알려줍니다. 체현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수많은 한글과 영어 성경의 역본들을 여러 차례 읽으며 철저히 비교분석한 책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김제임스 성경의 무오성과 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흥정역이 가장 정확한 한글 성경임을 입증합니다.

성경 신자들의 글모음 김재욱 외 9인

김문수, 김용목, 김재근, 김재욱, 김학준, 노영기, 이은희, 정성권, 진미희, 홍승현 등 김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로 믿는 성경 신자들의 고뇌와 기쁨, 바른 말씀의 증거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의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다양한 도표,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을 명쾌하게 총정리!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잘못 알려진 구원 교리와 성경 교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안내한 칼럼집. 지식보다 상식이 통하며,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합리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

성경의 역사 핀토/ 김용목·남윤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흥정역 한영대역 및 스터디 바이블

다른 모든 한국어 성경은 물론, 기타 김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합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습니다.



도서출판 **A** 그리스도 예수안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구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 유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 10:2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고후 7:10)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고차원적 신학일까요?

구원의 수많은 약속을 스스로 어기시는 하나님,
성도가 행위를 보태야 할 정도로 대속의 효력이 부실한 예수님의 피,
믿는 자를 집으로 삼고 영원히 거하시지만 그가 지옥에 갈 때 속수무책인 성령님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우상들의 종교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리지 않는 구원의 원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 내가 타는가, 태워주시나?
하늘나라 가지요 ♪ 크리스천이 가는 곳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 죄악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다시 내리지 않죠 ♪ 성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
주님 차장 되시니 ♪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인가?
나는 염려 없어요 ♪ 복음은 평안이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 방주의 탑승 과정과 목적지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 방주는 뒤집히지 않는다
벧шат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 방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ISBN 978-89-92485-46-3



9 788992 485463

0 3 2 3 0 >



정가 5,000원